

##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 이석기 이후의 과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첫 번째로는 1948년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분단된 후부터 65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이 이른바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의 대남 폭력혁명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건국 당시 대표적인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오늘의 번영하는 민주국가로 키워 준 자유민주주의가 내부로부터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내장(內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서독 극우·극좌 정당 모두 해산

사실, 역사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내장된 이 같은 위험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독일은 이미 오래 전에 이 사실을 체감했다.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존재했던 독일 바이마르(Weimar) 공화국은 인간이 만든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자랑했었다. 1932년 힌덴부르크(Hindenburg) 대통령은 총선거를 통해 원내 다수당이 된 나치당의 당수(黨首)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를 총리(Chancellor)로 지명했고 이것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운명은 끝장이었다. 다음 해 히틀러의 나치 정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책략과 폭력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합법적인 의회의 의결을 통해 입법권을 박탈했다. 그로부터는 일사천리(一瀉千里)였다. 홀로코스트(The Holocaust)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인류 역사의 괴물(怪物) ‘제3제국’(The Third Reich)이 이렇게 탄생했다.

2차대전 패전으로 독일이 분단된 뒤 1949년 독립을 획득한 서독(西獨) 건국 주역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철(前轍)을 되밟지 않는 것이었다. 여기서 서독은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Basic Law)에는 ‘방어 민주주의’의 세 가지 원칙이 구현(具現)되어 있었다. 첫째로는 “의사표현, 결사, 집회 등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하지만 이들 기본권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것, 둘째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 가치들을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事前的) 예방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독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많은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다. 우선 등장한 것이 연방헌법재판소였다. 서독 기본법(제21조②항)은 “정당의 자유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면서도 “그 목적이나 추종자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려 하거나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는 권한을 연방헌법재판소에 부여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정 절차에 의거하여 특정 정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정당은 ‘해산’되며 ‘대체정당’의 설립은 허용될 수 없었다. 서독에서는 이 기본법 조항에 의거하여 ① 1952년에는 극우 세력인 사회주의제국당(SRP)이, 그리고 ② 1956년에는 극좌 세력인 서독공산당(KPD)이 해산되었다.

민주주의를 방어할 목적으로 서독은 헌법보호청이라는 이름의 정보기관을 운영했다. 연방과 주 정부에 설치된 헌법보호청의 임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단체나 개인의 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국가

#### 특별기고



#### 이동복

- 신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
- 15대 국회의원
- 북한 민주화 포럼대표

#### 독일통일 될때까지

#### 서독 어떤대가 치렀는지

#### 타산지석 삼아

#### 대한민국號 내부

#### 선저(船底)에 뚫린 구멍

#### 성공적으로 메우는 일이

#### 정치권의 당면과제

#### 다수결원칙 포기한

#### ‘국회선진화법’

#### 새누리당 책임도 커

정보원과 유사한 기능의 헌법보호청은 “개인, 단체, 정당의 위헌행위를 적발하여 연방 및 주 정부의 ‘내무부장관’들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치를 의뢰”할 뿐 아니라 “독일내의 모든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 임용 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헌법보호청은 업무의 중점을 ‘조기경보(早期警報)’에 두고 있어서 “정치적 극단주의(좌우를 막론하고)에 대해서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찰(査察) 실시가 허용”되었다.

#### 공직자에 민주질서 충성 서약도

서독은 형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질서와 국제적 합의에 반하는 결사(結社)를 금지한 기본법의 결사 금지 조항(제9조②항)에 기초하여 제정된 결사법에 의거, ‘연방’과 ‘주’ 정부의 내무부장관들에게 단체 해산 명령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1964년 결사법이 공포, 시행된 후 서독에서는 1993년까지 모두 371개의 단체가 반국가·위헌단체 혐의로 해산되었다. 그뿐 아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동방정책’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사민당(SPD) 정부는 1972년1월28일 급진주의자 처리에 대한 훈령(Extremistenbeschluss)을 공포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훈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 희망자’들에게 기본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에 대한 충성 서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담당 직무와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훈령에 대해서는 서독에서도 당연히 좌파 지식인과 정치세력으로부터 거센 위헌 시비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1975년5월22일 술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정부가 이 훈령에 의거하여 취한 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무효화 소송에 대하여 “주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합헌(合憲) 판결을 내렸다. 이 훈령에 따라 1983년까지 약 350만여 명의 공공부문 취업 희망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실시되었고 주로 ‘공산당’과 ‘공산계열 조직’이나 ‘극우 조직’ 구성원으로 드러난 2,250여 명의 공직 임용이 거부되었다. 이 훈령은 1991년 독일 통일 후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서독이 1991년 동독(東獨)의 내파(內訌)를 유도하여 ‘흡수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단 기간 서독이 이 같은 적극적인 민주주의 방어 조치를 통하여 ‘극우(極右)’는 물론 ‘공산(共產)’ 계열의 극단주의 세력을 차단, 격리시키는 데 성공한 데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여기에 독일과 우리의 경우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은 소위 미완성 해방론과 민주지치론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공극적인 공산화 통일의 선결과제로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의 대남 폭력혁명 노선을 추구해 왔다. 북한의 대남 폭력혁명의 추진 전략은 이른바 3대 혁명역량 강화였다. ① 북한을 혁명기지로 건설하고 ②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며 ③ 국제 혁명역량과 제휴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파(南派) 공작원이나 남한의 자생적(自生的) 종북(從北)·좌파(左派) 세력을 이용한 지하당(地下黨) 구축 공작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 고 이해복 상임고문 유가족 본회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고 이해복 본회 상임고문 유가족은 지난 8월 30일 대한언론인회 후원기 회장에게 1천만원을 쾌척했다.

장남 이양원씨, 딸 사위 내외와 함께 본회를 찾은 미망인 방봉자 여사는 이날 고 이해복 선생이 대한언론인회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하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며 현금 1천만원이

든 대형봉투를 후원기 회장에게 전달했다.

대한언론인회에서는 이날 제재형 고문, 후원기 회장, 김은구 한기호 상담역, 이병대 부회장, 강승훈 회우, 정운종 상임이사가 참석해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오찬을 함께 했다. [4]



고 이해복고문 미망인 방봉자여사(오른쪽)가 후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에게 발전기금을 전하고 있다.

### 1면에서 이어집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조선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대외연락부·작전부·35호실 등 4개 공작부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경찰국 및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경쟁적으로 대남 지하당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남 혁명 사업을 전담해 왔었다. 북한은 2009년 조선노동당의 작전부와 35호실을 인민군 총참모부의 경찰국과 통합해 국방위원회 산하의 경찰총국(국장·김영철 대장)으로 통합하고 조선노동당의 대외연락부를 225국으로 개편하여 남한 내 지하당 구축을 주도해 왔다.

### RO그룹, 북한전술 잘못읽어

경기동부연합의 후신(後身)인 이석기의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는 북조선의 혁명기지에 연계된 남한의 자생적 종북 세력의 한 분파(分派)다. 지하당 활동을 축으로 하는 북한의 대남 폭력혁명 전략은 ‘만조기(滿潮期)’와 ‘간조기(干潮期)’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아 왔다. ‘만조기’는 폭력혁명의 조건이 만개(滿開)했을 때로 이때의 북한의 전술은 폭력혁명을 행동화하여 남한의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폭력혁명의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 북한의 전술적 선택은 폭력혁명의 발톱을 감추고 ‘통일전선’ 전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선전’과 ‘선동’을 이용한 ‘심리전(心理戰)’ 활동을 통하여 남한 사회가 정부 내지 정부 지지 세력과 ‘친북(親北)’ 및 반정부 세력으로 양분(兩分)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양 세력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증폭, 심화시켜 정부와 정부 지지 세력의 고립과 약화를 조장함으로써 ‘만조기’ 상황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 파괴를 위한 통미봉남(通美封南)은 북한의 ‘간조기’ 때 선택하는 외교전술의 하나다.

이번에 발생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이석기 중심의 RO그룹과 북한의 대남 폭력혁명 전술이 서로 엇박자를 낸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이 한국의 ‘혁명정세’를 ‘간조기’로 보고 ‘통일전선’ 전술에 입각한 대남 심리전에 치중하고 있는 때에 이석기의 RO그룹은 이를 ‘만조기’로 잘못 읽고 ‘폭력혁명’의 실행을 위한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한국 공안당국에게 꼬리가 밟힌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RO그룹을 이끈

이석기는 북한이 말하는 좌경 맹동주의의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좌경 맹동주의의 유혹에 빠진 이석기의 내란음모가 적발된 시점에서 문제는 한국사회에 이석기의 RO 그룹 말고도 상당한 규모의 자생적 ‘종북’ 내지 ‘친북’ 세력이 여러 개의 ‘분과’로 분지(分枝)를 이루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백일하에 모습을 드러낸 이석기의 RO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대남 지하당 공작을 뿌리 뽑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 진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우 그 동안 건국 이래 북한의 대남 폭력혁명 노선이 변함없이 지속적 으로 추구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노력에 중대한 하자(瑕疵)가 있어 왔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정당해산 헌법조항 햇빛 못 봐

대한민국도 헌법 제8조④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여 헌법재판소법도 제3절 55조에서 60조에 걸쳐 정당 해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단 한 번도 이 헌법 조항이 햇빛을 본 일이 없다. 그 동안 이석기가 최근 당권 투쟁을 통해 당내의 ‘비종북 좌파 세력’을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한 통합진보당과 그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에 대해 우파 애국시민 세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헌법 제8조④항의 발동을 통해 이들 종북 정당의 해산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그 동안 역대 정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일관해 왔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대한민국에는 정작 위헌적인 단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③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서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불법화되어 있다. 동법 제7조④·⑤·⑥·⑦항에 의거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한 자와 이적단체를 구성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자,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

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 및 그 미수범과 예비 또는 음모에 가담한 자도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이적단체 자체는 비록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1989년 대법원 판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1997년 대법원 판결),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1997년 대법원 판결),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4년 대법원 판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2010년 대법원 판결) 등 5개 단체를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법적 근거 부재로 단체의 법적 지위에는 변동이 가해지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

### 보안법위반 전과자 다수 국회 진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역대 대통령, 특히 ‘좌익’ 정권을 이끈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두 대통령의 사면(赦免)·복권(復權) 남발(濫發)로 인하여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자들의 상당수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심지어 국회에 진출하는 데까지 이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4월 11일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자의 경우, 통합민주당(지금의 민주당)은 248명(지역 210명, 비례 38명)의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로 이 가운데 44 명이 당선되어 전체 당선자 127명(지역 106명, 비례 21명)의 44%를 차지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20명이었고 심지어는 반공법 위반자도 2명이 있었다. 통합진보당은 75명(지역 55명, 비례 20명)의 출마자 가운데 40명(53.3%)이 전과자로 이들 가운데 이석기를 포함하여 8 명이 당선되어 전체 당선자(지역 7명, 비례 6명)의 61.5%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었다.

특히, 2012년의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무슨 표든지 표는 모두 끌어 모아서 원내 제1당이 되겠다”는 ‘천민(賤民) 민주주의’의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한명숙(韓明淑) 체제의 민주당은 당내에서도 ‘친노(親盧)·로 분류된’ 종북 ‘세력을 끌어안았을 뿐 아니라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野圈連帶) 구축을 통하여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구마

저 양보함으로써 RO 세력이 국회로 진출하여 원내 교두보(橋頭堡)를 확보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정치적으로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간접적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특히 노무현 정권 때 심화되었지만, 이른바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법이라는 무리한 입법으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다수의 종북·좌경(左傾) 성향의 사람들을 형 확정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사실 확인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을 번복할 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가로 탈바꿈시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진행되었다. 민주화 운동가로 간판이 바뀐 이들 가운데는 반국가단체 사건 연루자가 131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서독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좌경·친북·종북 성향의 인맥(人脈)을 공무원 사회는 물론 특히 학계, 교육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공공 분야에 대거 심어서 ‘대못’을 박아 놓는 일이 진행되었다.

이 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종북 세력의 온상(溫床)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지금 새누리당으로 개명한 한나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들 역시 오직 ‘표’만을 의식하는 천민 민주주의의 포로가 되어 패배주의(敗北主義)에 기초한 타협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보루(堡壘)를 지키는 노력을 태만(怠慢)하는 과오를 범했다.

그 대표적인 과오가 자유민주주의의 유지의 마지막 열쇠인 다수결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수용으로 국회를 식물국회(植物國會)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제, 이석기 내란음모의 법적·정치적 수습 과정에서 대두되는 최대의 난제는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차원의 처리가 아니다. 당면한 과제는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이 과거 서독이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를 개화시켰을 뿐 아니라 서독 주도의 ‘흡수통일’을 이룩하기까지 어떠한 대가(代價)를 지불했는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삼아 난파하는 자유민주주의호(號) 선저(船底)의 뿔린 구멍들을 제도적으로 메우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 반체제세력 썩 도려내라

## 이석기 이후의 과제

### 80년대부터 '폭력혁명 병' 번져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일단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런데 내란죄는 그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는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게 되어있다. 역사적으로 근대 산업시대에 이르기까지는 기계의 발달과 통신구조의 첨단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가조직과 군사조직 및 산업조직이 모두 개별적으로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작업(手作業)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국토를 침철(僭竊)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병력동원력과 무기 조달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그 죄를 구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좋은 예가 1934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사상 최악의 대공황사태를 맞고 있을 때, 재향군인회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던 맥과이어는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을 두 번이나 받은 예비역 장성, 스메들리 버틀러를 꼬드켜 내란음모를 추진했다. 그러나 버틀러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곧 고발하여 의회는 즉시 청문회까지 열었으나 내란죄를 구성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황당하다고 하여, 술집에서 한잔하고 떠들 수 있는 칵테일 푸치(Cocktail Putsch) 정도로 치부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대학가에서는 대한민국을 반(半)식민지 사회로 단정하고 무력투쟁에 의해 타도해야 한다는 '폭력혁명 병'이 전염병처럼 번졌고,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을 배후로 하는 '민족해방(NL)계열이 운동권을 장악하면서 혁명론은 북한 군사력과의 연계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었고, 일부만을 처벌하는 데에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가 따랐다. 그런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희석되기 시작했고 정치권과 사법부는 물론 학계에까지 만연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조차 극좌론이 아니면 힘을 쓰지 못 할 정도로 북한 정통론이 활개를 치게 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모든 시설이 최첨단기술과 통신시설로 연계·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사회와는 달리, 고도의 기술을 갖춘 전문가 몇명과 행동요원 소수만으로도 군 조직과 활동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산업시설과 국민생활을 얼마든지 마비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시스템의 기술발달로 송유관이나 댐의 수량제어시스템, 철도 신호 제어시스템, 하수처리장의 자동화처리 시스템, 전력망과 통신망 등이 해킹되면 나라 전체가 폭발·침몰·마비될 수밖에 없어 현대는 사이버공격이 물리적 전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충족의 판단도 달라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핵시설·댐·병원 등 95개에 해당하는 시설은 절대로 목표물로 삼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교전수칙까지 제시하고, 사이버공격으로 자국민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민간인 해커라도 국가차원의 물리적 보복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 헌법정신 무지에 망연자실

언론이 보도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이석기 의원은 RO라는 혁명조직을 만들어 그 수괴가 되었고, 그 조직원 130여명이 비밀리에 회합하여 결

### 특별기고



장석권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단국대 법대 명예교수

물리적전쟁보다도  
사이버 공격 더 위험  
내란죄 구성요건  
판단 달라져야

법적요건 안되는데도  
풀어준 대통령 특사  
청문회도 못열다니...

의를 다지고, 각자가 분담할 역할을 점검·확인하였으며, “전시상황 등 주요한 시기에는 통신·철도·가스·유류저장탱크 등 국가 기간시설을 폭파 차단할 것.”이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간부의 컴퓨터에는 사제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물과 제조방법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기록하여, ‘건강상식’이라는 폴더로, 위장·은닉하고 있었음도 발견됐고, 또 다른 간부의 ‘스마트폰’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를 총 10회 이상 검색한 자료도 발견됐다. 그리고 5월 비밀회합에서는 이석기 의원에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폭파시켜야 하는 거죠?”라는 질의·응답을 했음도 밝혀졌다.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5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고, 다시 2년 후에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어 의회에까지 진출했다. 아무리 대통령특사라 해도 법적 요건의 미비로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고사하고, 그 흔한 국회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국회가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다수결의 원리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파괴한 헌법정신의 무지에 이르러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합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행하는 언행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합의기관의 대표성은 구성원 개개인이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서 구성원의 합의로 의결됐을 때에만 그 기관의 의사로서 대표성을 갖는 것이다.

### 부정부패 척결도 함께 이뤄져야

내란음모죄 적용여부는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지난 해의 총선과 대선,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부분의 국민이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모처럼 눈을 뜨기 시작한 이 시기야말로, 반체제세력들을 모두 색출·도려내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예부터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기회도래의 초점에 맞춰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 상호간에 동반자의식이 아닌 적대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국민행복을 함께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기회로 부정부패 척결 또한 시급한 과제다.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부정으로 호화롭게 사는 것과 비교할 때 비로소 좌절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하위 일뿐 아니라 오히려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들과 순위를 다투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우리 사회의 반 부패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의 활력과 부패방지는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존중하면서 탈세나 뇌물수수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이어지면 된다. 박근혜정부가 표방한 국민행복을 위한 신뢰받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확고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문]

## 본회 가을철 문화 탐방 충남 당진으로 갑니다

대한언론인론인회는 아래와 같이 충남 당진시 일원 문화 유적지와 현대제철소, KBS 당진송신소, 삼교천 등지를 돌아보는 문화탐방행사를 갖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일 시 : 2013년 10월 18일(금) 오전 8시 프레스센터 정문 출발
- \* 행 선 지 : 충남 당진시 일원  
(자세한 탐방 일정은 출발 당일 안내함)
- \* 참가신청 : 80명(10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부터 선착순접수)
- \* 전 화 : 02-732-4798 이메일 kjcl405@hanmail.net



황우여(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민주당 대표, 홍원기(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대한언론인회 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한국편집기자협회 창립 49주년 기념식

사단법인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박문홍)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문]

# 언론법률 共滅의 길 가고 있다

## 대한언론인회 '언론난립과 그 폐해' 대토론회

한국언론은 사실(팩트) 존중이란 전통의 실종과 포털이나 사이버 언론을 통한 뉴스 가치의 혼란, 편파뉴스 범람 등 언론 난립 상황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이버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언론 스스로의 자정, 정파성에서 벗어나 팩트를 중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국내 유일의 원로 언론인단체인 대한언론인회가 9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후원으로 개최한 '대한언론 대토론회-우리 사회 언론 난립과 폐해, 이대로 좋은가?'에서 제시됐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홍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신문 산업은 메이저신문들도 적자에 허덕이는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독자가 줄어 지국장들은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데도 신문들은 무가지 살포와 증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인터넷신문은 2008년 1,282종에서 2012년 2,921종으로 급증했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같은 언론 매체의 정글 속에서 각종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는 언론 난립과 그 폐해를 집중 분석하고 우리 언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 사회를 맡은 문명호 본회 주필(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미국 역시 인터넷 매체의 급속한 성장과 광고시장 위축으로 한국과 같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자구책으로 뉴욕타임즈 같이 동영상 콘텐츠에 도전하고, 기사의 특화와 온라인 뉴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을 들었다.

주제발표자인 임영호 교수(부산대 언론학)는 "현재와 같은 언론의 범람은 지난날의 정치적 억압이 풀린 결과라고 생각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한 조치는 많지 않다"면서 토론의 결론으로 "뉴스의 원본을 제공해온 메이저 신문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에 큰 공백이 생길 것이다, 폭탄 같은 말일지 모르나 많은 한국의 일간지들은 10년 뒤 절반 이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예측된다. 신문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저널리즘과 언론의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신문매체들 중 몇몇은 살아 남아 한국 신문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비판적인 전망을 했다. 그러나 임교수는 신문이 인터넷매체를 따라가는 경박한 보도 태도를 지양하고 언론 내부에 모두가 인정하는 도덕적 중심부를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때 주변부가 정화되고 권위를 얻게 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정보법률의 다매체 환경 속에서 신문을 신뢰하고 언론의 존립을 보장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에 나선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우리 법제는 사이버언론을 유사언론 정도로 읽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따지고



대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사회·문명호 주필.



종합토론·이도형 회우.



종합토론 김휴선 회우.

문은 법제와 관례의 축적이 절실하며 정보통신법 제44조(불법정보의 유통금지)만 준수돼도 언론을 포함해 사이버 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이다. 지국처럼 1인 1언론이 가능한 세상이니 어떤 규제도 필요 없다는 것은 도그마"라고 지적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조폭성 수준의 기사와 사이버 언론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답이 안 나온다"며 "한국 기존언론들이 현장 검증 없는 인터넷 매체와 사이버 언론들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 한 개선편안으로 "기자를 교육할 공공저널리즘 스쿨 제도를 세워 1년 정도의 이수자 혹은 석사 취득자에게 기자 자격을 주는 것도 검토할만하다"고 제안했다. 전희경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팀장은 "언론 난립의 폐해는 어떤 언론이 좋고 어떤 것이 쓰레기 인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갖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울만큼 글을 읽고 평가하는 교육이 어릴 적부터 이뤄져야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중광 한림대 객원교수는 보도자료 베끼기의 문제점과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 홍원기회장 인사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신문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흑자 경영으로 호황을 누리던 신



고 증면경쟁, 확장지 살포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가지를 1년 이상 씩 배달하고 있고 확장

비는 1부당 10만원 안팎 씩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본사는 차치하고 우선 일선 지국 운영이 점점 어려워 졌습니다.

따라서 소위 메이저신문사 조차 단독지국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연합지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신문은 2008년 1,282종이던 것이 2012년 현재는 2,921 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정상적인 언론환경이 아닙니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같은 언론매체의 정글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언론인회가 우리 사회 언론의 난립과 그 폐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신문독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덩달아 신문지국장들이 "신문장사는 끝났다"며 지국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탓입니다. 그런데도 신문사들은 일선신문시장 변화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과당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면 경쟁과 확장지 살포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은 80년대를 전후해서 급격한 변화를 불러 왔습니다. 우선 배달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



성황을 이룬 대토론회장.

대가의 지불 등을 강조했고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은 무료 뉴스를 제공해 신문을 위협하는 포털에 신문매체들이 단결해 뉴스공급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은 종합 토론회에서 "요즘 기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 대한민국 기자인지 노동당 기자인지 알 수 없다"

며 그 원인을 물은 데 대해 임 교수는 "그것은 한국사회의 지적풍토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또 김휴선 회우가 '산소호흡기'를 달고있는 격인 한국신문들의 대처방안을 질문한 데 대해 임교수는 "신문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영수준이 올라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4]

# 브랜드가치 높여 활로 찾아라

## 대한언론인회 ‘언론난립과 그 폐해’ 대토론회

언론 매체가 넘쳐나고 있다. 대표적인 뉴스 매체인 신문시장에서는 수많은 신문들이 제한된 독자와 광고시장을 놓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언론 산업 전반이 장기적인 침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간행물 등록 건수는 2008년의 9,652종에서 2011년에는 12,82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 신문이 1,282종에서 2,921종으로 급증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인터넷, 특히 포털의 급성장으로 위기를 맞고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개인 매체(파워 블로그나 트위터인)들까지도 사실상 군소 언론 매체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언론 매체의 외연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물론 뉴스 매체의 양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일부 군소 언론사들이 보도나 영업에서 보여주는 비정상적이고 편법적인 행태는 제한된 시장자원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저널리즘이라는 공적 제도의 정당성까지도 잠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의 언론 상황을 다양성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매체의 ‘범람’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규정하며 그 부작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도 적지 않다.

### 언론 매체 범람의 구조적 환경

언론 매체의 범람은 최근 시장에 대한 인위적 규제와 통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다양한 형태의 욕구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산물로서의 성격이 짙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미디어 환경 자체가 구조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신규 매체의 시장 진입을 더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둘째, 매체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의 열독률은 오히려 꾸준히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체를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신문 구독률은 1996년의 69.3%에서 2011년에는 24.8%로 하락했고, 신문 열독률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반토막이 났다. 대다수 매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행을 병행하거나 온라인만으로 운영되는데,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온라인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처럼 뉴스매체의 범람은 시장 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업계 전체의 하향 평준화를 넘어서 공멸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셋째로는 뉴스 매체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콘텐츠 생산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거나 무임승차하는 매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의 부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뉴스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뉴스 생산보다는 유통에 주력하는 매체가 저널리즘 기능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것은 뉴스의 질적 하락의

우려가 커질 뿐 아니라 생산을 전담하는 전통적 매체의 경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싸구려 뉴스’의 범람은 일종의 시대적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뉴스와 오락, 싸구려 정보와 뉴스 간의 구분이 갈수록 흐려지고 있으며, 뉴스 생산 매체 중에서도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 보다는 간접취재나 외부 공급원에 주로 의존하는 매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금처럼 경쟁이 더 가속화하면 시장 정화 기능이 작동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시장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

### 주제 발표



임영호

·부산대 신문방송학과교수

지가 한국 저널리즘의 일반적인 소통방식이자 문법으로 서서히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뉴스 정보 편식과 공론장의 파편화를 들 수 있다. 신문들이 정파적 관점에 따라 대립하며 ‘차별화되지 않은 차이’를 강조하는 것처럼 시민들은 동일한 사안에서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정보도 자신의 입장에 맞는

## 팩트 중시 본연의 기능 살려 질 높여야 인터넷 싸구려 뉴스 추종관행 버릴 때

이 크다.

### 뉴스매체 범람과 저널리즘 문화의 변질

뉴스 매체의 범람과 이에 따른 치열한 경쟁구조는 저널리즘 직업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로는 속보성 혹은 속도가 지배하는 저널리즘 문화에서 발생하는 뉴스가치의 혼란을 들 수 있다. 비슷비슷한 뉴스와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웬만한 정보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곧 묻혀버리게 된다. 사람들이 정보 홍수 속에서 오히려 뉴스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풍토에서는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낚시성 기사’가 넘쳐나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뉴스보다는 흥미 위주의 화제거리가 더 많이 유통되는 뉴스의 가십화라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이용자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방식이 일상화하면서 이처럼 뉴스가치의 혼란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조차도 시류에 영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저널리즘 가치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팩트’, 즉 사실성 존중이란 직업 전통의 실종이다. 이는 사실 뉴스 매체 범람으로 생겨난 새로운 문제점은 아니다. 메이저 언론사에서조차도 어떤 사안을 보도할 때 특정한 시각에 맞추어 사실을 의도적으로 선별하여 왜곡하는 악습은 상당히 뿌리깊은 관행이자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언론의 정파성 강화라는 추세와 맞물려 더 심각해진 것이다.

특정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편파적인 정보를 사실로 포장하

부분만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사회 갈등만 증폭, 고조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현재 언론의 범람은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표출하여 사회 갈등을 수렴,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확대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의 문제점은 수많은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가치나 서비스를 언론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이에 맞게 변신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의 언론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악화 때문에 양화의 입지가 좁아지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언론 자체를 점차 외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개혁방안을 몇 가지 키워드로 풀이해보자.

첫째, 비록 외부의 인위적 구조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혼란이 바른 방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언론의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언론의 난맥상은 어떤 큰 구조적 문제점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오랫동안 관행처럼 언론의 작은 비리 행위들을 단지 언론사라는 이유로 성역처럼 방치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

이미 존재하는 장치들을 언론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우리에게선 언론중재위처럼 외국에서조차 모범사례

로 꼽히는 제도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지금 같은 ‘난맥상’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는 언론사의 조직 운영방식이든 법적 제도이든 간에 모두 매체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콘텐츠’가 지배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하드웨어의 규모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필요하다. 가령 현재 무형의 콘텐츠는 공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정보 이용에 대한 사람들의 비용 지불 의사는 매우 낮으며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에서 공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신문의 입지는 매우 좁다.

좋은 콘텐츠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며 결국에는 모든 언론의 설 자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셋째는 언론이라는 장에서 통용되는 도덕적, 지적 권위, 경영학적 용어로는 ‘브랜드 가치’라는 무형 자산의 문제이다. 정보의 신뢰성은 상당 부분 전달자의 이름값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 기자나 회사, 종사자 집단 차원에서 장기적인 자기 규율과 관리라는 희생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가 형성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언론 자체를 점차 외면하게 될 것이다.

과연 포털이나 인터넷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주류 신문만이 갖는 장점과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언론의 권위와 전통을 쌓아나가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일은 한 언론사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언론 전체를 건강한 생태계로 정화하고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언론의 개혁은 제도적 틀이 아니라 결국 언론인의 일상적 활동과 관행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현재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는 전통과 관행, 가치 등 무형의 측면들에 깊숙이 배어있다는 점에서 개혁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언론의 취재이든 기업 활동이든 언론을 모범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장치는 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된 관행들이다.

한국 언론에서 주변부의 문제점은 따지고 보면 중심부의 문제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간 다양한 형태의 개혁 시도가 결국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해진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일부에서 개탄하는 ‘영터리’ 언론의 범람에 대한 대책 역시 한편으로는 사이버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주류 언론사나 기자 주도의 직업적인 생활혁명, 문화혁명을 점차 확산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언론이라는 생태계 정화 작업은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국문]

# 유사언론 규제 장치 필요하다

대한언론인회 '언론난립과 그 폐해' 대토론회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

언론에 관한 법적 측면에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제3세대 언론법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6년 6월 현재가 다른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신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낮춘 것을 위험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주류언론에 대한 적대감이 투영됐을 법한 법제였다. 대신 등장한 신문진흥법은 인터넷언론을 규율대상으로 끌어들었다. 지금 사이비언론이 한국 언론의 미래를 어렵게 한다고 개탄하지만 정작 언론법에서는 유사언론 정도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를 유사언론이 아니라 언론이 아닌 비언론이라는 시각으로 교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언론 안팎이 처한 도전의 구체적 모습인 것이다.

언론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적적으로는 착안하는 내용이 없다. 기껏 언론피해구제법률을 통해 아름답게 얘기할 뿐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유만세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은 사이비언론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두루뭉술한, 구름 잡는 이야기뿐이며 법의 입장에서 어떤 경고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사이비언론을 얘기하면 그들로부터는 '너나 잘 해라', '경쟁자가 많으면 경쟁의 우위를 챙기면 될 일이지', '진출료를 왜 막느냐'는 지적구를 듣기에 딱 알맞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해 입법 관련자들이 얼마나 고심해야 할 일인지 두고두고 숙제로 남을 것이다. 언론계가 얼마나 질서 있는 정원이 될 것인가 혹은 무질서한 밀림이 될 것인가? 온라인 언론이 3,000개사를 헤아리는 상황이다. 1인 언론은 물론이고 돈만 있으면 언론사를 창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일선에서 돈만 내면 기사를 만들 수도, 막을 수도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광고는 겨우 현상유지다. 기업은 특정 상품이나 특정 현장에 대한 비난 비판성기사가 나오면 다음은 사주를 공격할 준비도 했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럴수록 정통, 정론 언론에 대한 욕망도 늘어간다고 말로는 한다. 신문광고가 기업이미지나 제품 판매를 위한 차원이 아닌 지는 오래되었다. 언론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완수하도록 법제와 모든 정부의 정책도 유도되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1인 1언론이 가능해지니 어떤 규제도 필요 없는 새 세상이라고 보는 것은 도그마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사실은 이런 언론세미나에서 나온 모든 질문, 그리고 걱정 자체에 답이

토론  
요지

〈발표순〉



홍정기 논설위원.



변희재 미디어워치대표.



전희경 팀장.



한중광 교수.



김영환 편집위원.

## 공공 저널리즘 교육제도 시행 검토를 포털의 뉴스 베끼기 차단 유료화 시급

있을지도 모른다. 대한언론인회의 토론도 답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모든 국민은 기자' 라면서 누구나 독자기자로 참여하여 기사를 올리는 제도를 오마이뉴스가 만들었을 때 크게 공감했다. 실력 없는 기자들이 자신의 영역을 철통같이 막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전 국민이 참여해서 경쟁해보자는 의미에서였다. 그러나 10년간 운영을 지켜보면서 부정적 생각을 많이 했다.

기자 역할을 하다 보면 고발성 기사로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반대로 말하면 모든 국민은 경찰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들어가서 범죄자를 잡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일까? 해서 오마이뉴스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모든 독자칼럼을 100% 개방하다가 편집자들이 안 본 기사는 가리게 되었다. 모든 국민은 기자라는 것에서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언론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제품이 많을수록 소비자는 더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 경제원리이다. 그러나 언론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좌파건 우파건 없다. 일부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쉽게 말해 조폭이다. 기사로 협박해서 광고비를 받고, 포털에 올린 뒤 광고비 받고

내린다. 아주 일상적인 영업이다. 언론을 위장한 조폭사업이니 많아질수록 칼 잘 쓰는 조폭이 등장한다. 방송 3사나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관찮고 인터넷 언론만 문제로 거론되지만 점점 포털을 중심으로 기성언론이 이런 사이비언론에 끌려 다니는 수가 허다하다.

최근 낸시 랭이란 배우 내지는 예술가가 영국 BBC로부터 공식 퍼포먼스에 초청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 퍼포먼스가 변희재 때문에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초청받은 일이 없다. 조선, 한겨레, MBC가 걸려든 사건이다.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라가면 인터넷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KBS, 조선, 동아, 한겨레까지 다 달려드니까 요즘 정정보도 청구하면 최소 10개사 이상 한다. 선정성과 검증 없는 속보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인터넷과 그 집합체인 포털이 다 장악하면서 전통과 역사, 권위가 있다는 기성 언론도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신문법에서 인터넷 언론의 반발로 자본금 5천만원 규제가 빠졌는데 사업자 등록과 직원 3명 이상만 있으면 인터넷신문을 차릴 수 있다. 언론사를 규제할 수 없다면 좀 더 과감하게 언론인 자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게 아닐까. 적어도 1년 이상의 공공저널리즘 스쿨을 만들어서 그 이수자 혹은 석사 이상자에게만 언론직에 종사하

고 언론사를 차릴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미국은 군소 지방신문을 거쳐서 중앙으로 간다. 올라갈수록 사고를 못 치니까 NYT, WP의 권위가 유지된다.

우리나라는 KBS, MBC에 들어가 사고 친다. 아무 훈련 없는 기자들이 마구잡이로 운동권식 보도를 한다, MBC 음해 거짓 보도와 6번 싸웠다. PD수첩 광우병 조작한 작가, PD들이 아직도 당당하게 자기 소리 내며 자기 칼럼 쓰고 있다. 그런 정도로 터무니없는 조작 보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기자, 언론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저널리즘 스쿨을 세우고 이수를시켜 기자자격을 주고 치명적인 왜곡보도를 3번 하면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다. 언론인 자격을 규제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걸 하자고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상황이 그렇다. 특히 포털에 언론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경영적 권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상적인 시장논리로 할 수가 없어 결국 등쳐먹는 사업이다, 이렇게 젊은 기자들에게 인지가 되어 있다.

조중동이나 KBS MBC 기자들이 10년 뒤 종이신문이, 지상파가, 케이블 텔레비전이 살아있을지 다들 불안해 하는데 '언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계에 누가 있는가? 모든 산업과 기업에는 경영인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를 들어본 적이 없다. 따라서 젊은 기자들도 언론경영에 대해 알지 못한다. 계속 포털만 쳐다보며 포털에게 '우리가 먹히는 구나', 이렇게 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자신 있게 기사를 쓸 수 없는 것이다. 조폭성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정치권을 위한 나팔수가 되어 정치권에 들어가겠다는, 예전 같으면 기자가 보좌관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됐는데 지금은 600~700명이 되는 국회출입기자들 상당수가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뚫다. 언론인 경영인 교육도 해야겠다.

전희경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정책팀장〉

언론난립과 이에 따른 폐해현상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우선 한정된 재원이 움직이는 언론 시장에서 언론사의 증가는 재원의 감소를 가져오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난립이 될 수록 그에 따른 우려와 과장이 폐해가 될 수 있다. 둘째 측면에선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놓고 볼 때 언론은 팩트에 근거한 올바른 정보를 유통시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서 우리 사회의 진전에 이바지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파괴되는 현상을, 즉 사이비 언론이 언론을 자임했을 때 그것이 언론소비자인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란 그런 두 가지가 혼재된 상황이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 6면에서 이어집니다.

언론난립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폐해의 현실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 공급자들은 오래전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고 폐해를 경계해왔지만 뚜렷한 해답을 못 찾았다. 또 언론소비자인 독자나 시청자들은 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며 위기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정부든 언론이든 시민사회의 움직임이든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법을 논할 때도 이 2가지 그룹의 현실인식 차이나 냉온의 문제를 좀 극명하게 봐야겠다. 물건이 다양해지면 소비자가 잘 고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인식에까지는 도달한 것 같다. 언론이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정점을 민주화과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고 본다면 기성 언론들이 가졌던, 정·재계를 벌벌 떨게 했던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언론들이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군소, 지방, 사이비언론을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이런 언론에 대해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는 기성언론이 지녔던 권력 남용 탓이 있다. 거대 권력인 언론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정치권은 정보공개 등의 힘 빼기, 재계는 경제민주화 등 변화를 향한 사회적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과 달리 주류, 기득, 기성 언론의 힘 빼기 작업에 대해선 그다지 애기가 없었다. 마치 이런 중요한 징검다리가 ‘skip(누락)’되다 보니 언론폐해를 여론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군소언론 문제의 지적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혼탁한 언론 상황에서 언론을 빙자한 권리침해와 명예훼손이 지금도 벌어지는 마당에 주류언론의 문제들이 부각될 때 이것이 방법론적으로 이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해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메이저언론들도 군소언론사의 행태를 답습해 제목을 자극적으로 붙이지만 실제 내용은 판판인 애기를 전한다, 사회적인 이슈는 던지지만 후속 조치에는 미흡하다. 고매한 사설·칼럼 밑의 선정적 링크도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주류와 군소언론의 차별성이 뭐냐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그럴 경우 해결점을 찾는 동력은 점점 멀어질까 두렵다. 뉴스 콘텐츠 공급의 측면과 아울러 소비자 측면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언론소비자가 어떤 것이 쓰레기인지, 옥석을 구분하는 안목을 갖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다. 한 편의 글이 나오기 위해, 글쓰기에 엄청난게 많은 팩트 확인이 중요하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긴급한 수험용 글쓰기가 아니라 글을 읽고 평가하는 교육시간을 어린 시절부터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링크 걸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SNS나 블로그를 생산해낼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는 것이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방편이 될 것이다.

## 한중광

〈한림대 객원교수·전 KBS인터넷 사장〉

지하철에서 사라지는 것이 많지만 대표적인 3가지가 있다. 무료 신문, 보파

리로 이동하는 잡상과 구결인, 전철 광고가 그것들이다. 7인 좌석의 모두가 스마트 폰만을 보고 있으니 광고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래 창조과학부에 의하면 휴대폰 사용대수가 5414만 대로 인구 5,104만 명보다 310만대 더 많다. 어린이까지 치면 굉장한 보급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옛날 컴퓨터가 신문을 읽는 도구였다면 지금은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스마트 폰으로 읽고 있다. 나도 방금 이 자리에 앉아서 수천 명의 회원들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든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소식을 갤럭시 노트를 이용해 SNS메시지로 날렸다. 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이용률은 95%로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교육부가 초중고생 628만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마트 폰이 거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트위터, SNS 등 작은 기기로 소식을 주고받는 기기가 발전하면서 1인 방송, 1인 언론 시대가 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 85%가 인터넷 신문을 이용하고 있다. 점점 커지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신문 부수는 반감했고 광고매출은 7년 사이에 55%가 격감했다. 우리나라 인터넷매체가 3,914종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어려워진 종이신문은 어떻게 다시 살아남을까? 우선은 베껴 쓰기 막기가 굉장히 큰 키워드로 보인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들은 뉴스 기사를 쉽게 복사하여 블로그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남의 기사를 타자도 치지 않고 순식간에 복사하고 짜깁기하여 굉장한 전문가이며 파워 블로거라고 행세한다. 이를 막는 것은 유럽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많은 외국신문들은 복사 방지장치를 갖고 있다. 또 중요한 것은 돈 내고 콘텐츠를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영상이든 그림이든 쓰고 잘라 붙이고 자기 것처럼 베껴 쓰면서 미안함이 실종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그런 일로 일부 법률사무소들을 중심으로 대학생에게 소송을 거는 일도 있었다. 남의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한다. 다음 문제로는 보도 자료다. 행정부서나 기업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명 문장가들이 만든 보도 자료는 너무나 훌륭하다. 훈련이 안된 기자들은 토씨 하나 안 고치고 자기가 쓴 것처럼 그대로 올리기도 한다. 출입처에서 보도자료를 자기 것처럼 쓰는 문제를 빨리 고쳐야 한다. 다시 말해 저널리즘 수준을 좀 더 올리고 콘텐츠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며 베끼기를 고치는 것이 언론 난립과 폐해 문제의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136년 전통의 워싱턴포스트가 인터넷 상거래로 250억 달러의 재산을 지닌 아마존닷컴의 제프리 베조스에게 2억 5,000만 달러에 팔려간 것은 종이신문의 운명을 웅변한다. 한국의 신문들은 인터넷 초창기에 신문을 그대로 옮겨 실으면 신문이 선전될 것이라고 착각했다. 기자들도 왜 무료로라도 포털에게 뉴스를 주지 않느냐고 안달했다. 이런 안이한 각사의 뉴미디어 대응이 크게

몽쳐서 결국은 포털의 자양분이 되어 유통자가 생산자인 언론을 위협하는 공룡을 키워낸 것이다. 언론의 품질적 측면에서 보면 신문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파성이 너무 강하다. 논조의 양극화가 극심하다. 그것이 언론의 생명인 팩트 전달에도 오염되었다. 예컨대 지난 5월 탈북자로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 대북 전단 보내기 운동을 펼쳐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창의적인 반대(creative dissident)’ 운동으로 뉴욕 인권재단이 수여하는 바츨라브 하벨 인권상을 수상했을 때 거의 모든 국내 신문이 외면했다. 동아일보, 연합뉴스 정도와 우파 인터넷만이 보도했을 뿐이다. 이 상의 1회 수상자에는 미안마의 정신적 지주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들어있다. 정파를 떠나서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었지만 무슨 뉴스의 게이트 키퍼인지 묵살되었다. ‘보도되지 않은 것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신문의 생명인 팩트 존중, ‘레퍼런스(참고 혹은 典範)’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권위자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말에 동감한다. 최근 종북 세력의 핵심인 국회의원 이석기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대해 이미 해산청원서가 2011년에도 제출되었다. 이 뉴스도 신문들은 외면했다. 굶을대로 굶아터져야 기사를 쓴다는 것인가? 이처럼 신문이 사실전달의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독자들이 외면하는 요인이 되고 신문의 위기를 심화하는 게 아닌가 한다. 지금 인터넷 정보화 사회에서 각국 사이트에 1급 정보들이 넘쳐난다. 그러니 지식층 일수록 신문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

다.

언론의 품질적 측면에서 인적충원 문제가 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도발적 구호에 ‘언론이 별거나 나도 하겠다’고 덤벼들지만 모든 사람이 기자가 될 수는 없다. 인구 20여만 명의 소도시에 10년간 언론사가 2배로 늘어 거의 30개가 있는 곳도 있다. 수익모델이 없다 보니 유사석유 공급을 알선하여 돈을 뜯고 다시 이를 헐박하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다. 사업의 방패가 된다면 적자라도 좋으며 뛰고 있고 지방광고를 따기 위해 지역지가 전국에 기사를 두며, 역으로 전국지가 지역판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광고를 공략하는 모습도 보인다.

신문의 생존을 위협하는 포털에 대해서는 네이버 같은 뉴스 유통업체에 뉴스공급을 끊어 신문사들이 디지털 뉴스 유통을 단일화하는 방법도 신문협회 같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한다. 인터넷 초창기인 90년대부터 시도했지만 해결 못한 숙제다. 포털이 누려온 초과수익을 신문이 되찾아야한다. 빈혈 상태의 환자가 남에게 수혈하는 것은 죽어도 좋다는 어리석음이다. 포털로 뿔려 있는 무료 뉴스의 구멍을 막지 않는 한 신문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게 뉴스의 디지털화를 지켜보아온 본인의 생각이다. 신문의 퇴조는 제4부로서의 권력 감시 기능도 약화시킨다. 언론 난립 상황에서 신문이 팩트 존중 같은 본질을 잃는다면 이는 민주주의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 언론계에서부터 이런 난립의 해법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하여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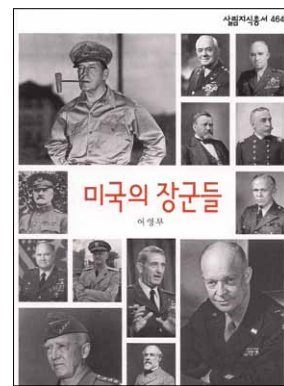
## 회우들이 펴낸 신간

## 여영무 회우 ‘미국의 장군들’

흔히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한다. 전쟁을 기점으로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를 생각하면 ‘전쟁의 리더’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최고 권력자인 셈이다. 이 책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한 14인의 군사 리더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남북전쟁’에서부터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최근의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약 140여 년의 미국 역사가 이 군사 리더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술주정꾼에서 남북전쟁의 영웅으로 거듭난 올리시스 그랜트, 꼼꼼하게 적어놓은 인사수첩으로 최고의 지휘관을 선정했던 조지 마셜, 김일성의 6·25남침전쟁 직후 도쿄에서 수원에 날아온 맥아더장군의 머리를 섬광처럼 스친 인천상륙작전 계획을 부하들의 격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성공시키는등 14명 미국 명장들의 지혜와 전략들을 다루고 있다.

20년간 소령으로서 생활고 때문



에 되역하라는 아내의 강권을 물리치고 오랜 기다림 끝에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두 번에 걸친 미국대통령의 영광을 안은 아이젠하워의 견인불발(堅忍不拔) 인내력도 시선을 끈다. 은인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리거

나 약점을 강점으로 대체하고 강점을 더욱 키워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군들의 활약상은 흡사 지금의 성공한 기업인이나 경영인전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극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남다른 전략과 전술을 준비했던 군사 리더들의 열전(列傳), 명장들의 지혜와 전략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시대가 원하는 위기관리능력과 창조전략의 밑그림을 그려보이고 있다/살림출판사 발행 - 살림 지식총서 464호 / 판형 / 120x190/120p/4,800원 [4]

#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심금울린 출판기념회

본회 6·25 참전 언론인회 주최 대성황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등 낭송 숙연

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회(회장 박기병)는 지난 9월 10 일오후 5시 30분 프레스센터 20 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6·25 참전언론인(종군기자 포함) 30 여명의 생생한 6·25 참전기 ‘우 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출 판기념회를 가졌다.

이경재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백승주 국방부차관, 김 석우 전 통일부차관, 6·25 참전 언론인들을 비롯한 150여명의 전 현직 언론인들이 참석한 이 날 출판 기념회에서 홍원기 대 한언론인회 회장은 “6·25 참전 언론인들이 펴낸 이 생생한 참 전기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며 누구와 싸워야 하는 지를 극명하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도 값진 사료(史料)로 널리 읽 히고 전승되어야할 증언이자 군 정훈교육자료로도 널리 활 용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축사에서 “웬은 홍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 듯이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사 회정의 실현과 국가발전을 위 해 사명을 다해 오신 6·25 참전 언론인들의 참전 수기는 국가 의 안보역량 강화에 있어 그 어 떤 무기체계보다도 강한 정신 적 힘이 될 것”이라고 이 책 발 간이 갖는 의미를 높이 평가 했 다.

홍원기 대한언론인회회장은 이날 백승주 국방차관에게 정 훈 교육 자료로 활용해 달라는 취지로 이 책 100부를 기증했 다. 또한 대표 집필자로 6·25 당시 춘천 대첩에 참전했던 박 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한다는 심정으로 책을 발간했다”며 “이 책을 통 해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 식을 갖고 온 국민이 안보관을 확고히 정립하길 바란다”고 말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 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일부 국 민들 가운데 북측의 대남전략 에 편승해 6·25 전쟁을 북침전 쟁이라고 왜곡 선전할 뿐만 아 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릇 된 안보관을 심어주고 있는 상 황에서 이 책 출판이 갖는 의미 가 각별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 언론사 연구에 해 박한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 예교수는 ‘우리는 이렇게 나라 를 지켰다’는 6·25 전쟁의 생생 한 증언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하 겠지만 우리나라 언론 사료(史



홍원기 회장 인사말.



박기병회장 인사말.



이경재 위원장 축사.



정진석교수 독후감.



김후란 시인 시낭송.



김종성 성우 ‘전송가’ 낭독



홍원기 회장(왼쪽)이 백승주 국방차관에게 책 100부를 기증했다.

料)적 가치로 책의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고 독후감을 피력했 다. 정 교수는 이 책 말미에 ‘6·25 전쟁과 종군기자들’ 제하 의 글을 기고했다.

식전행사로 국방홍보원이 만 든 ‘60년전 사선에서’의 영상물 을 시청하고 안평선 대한언론 인회 이사가 제공한 CD ‘전우 야 잘 자라’(유호 작사·박시춘 작곡)를 듣고 본회 회우이자 시 인인 김후란 여사(‘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가 심금을 울린 모윤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 다’와 성우 김종성씨의 ‘아 6·25!’(지용우 6·25참전언론인 회 간사 지음·별향) 낭송도 장 내를 숙연케 했다. 김종성씨는 그동안 태조왕건, 대왕의 꿈, 불멸의 이순신등 주로 비중 있

는 대하드라마 해설을 맡아왔 다.

한편 홍원기 회장은 이날 책 출판을 위해 노고가 많았던 박 기병 한영섭 김준하 황대연 지 용우 정진석 이상호 정운종 회 우등 출판위원들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날 행사엔 이경재 한국방 송통신위원회 위원장(본회 회 우), 백승주 국방부차관,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현재 박선영위원 이 추진하고 있는 6·25 추념공 원건립국민운동본부 이사장직 을 맡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차수정(예비역 해병소 장, 6·25참전유공자회 부회장), 6·25 참전언론인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찬조금과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본문]

글·정운종 상임이사 사진·이철영 편집위원

## 6·25 전송가 (Battle Hymn)

지용우(본화논설고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책 한권이 전달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6·25 전쟁에 참전해서 싸우다 구사일생으로 살 아남은 노 언론인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쓴 참전기,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가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은 결코 소설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총탄이 비오듯 하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피의 기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25도 63년 전에 끝나버린 옛날이야기가 아닙 니다/ 휴전협정으로 총성만 멎었을 뿐, 언제 또다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3천리 강산을 피로 물 들이고, 전 국토가 갈갈이 찢겨 초토화된 6·25는 세계전사 를 뒤져보아도 닮은 유례가 없는 반인륜적 동족상쟁의 참극 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2년 전에 일어난 미국의 남북 전쟁도 동족상쟁으로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노예해방’을 둘러싸고 남북이 충돌한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6·25와 부분적으로는 닮았지만 그것은 중 국, 프랑스, 미국 등 오랜 외세의 지배 및 간섭에 항거해서 싸운 민족전쟁으로 정의 됩니다/ 6·25전쟁은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순전히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려는 김일성의 야욕에 스탈린과 모택동이 동조한 침략전쟁이었습니다/ 동 족이 동족의 가슴에 총탄을 퍼부은 이 어이없는 전쟁으로 남북이 합쳐서 250만명이 폐죽음 하고, 1천만 이산가족이 생겨났으며, 전 국토가 초토화하는 등 유사 이래 한번도 경 험한 적이 없는 최악의 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의 편이었습니다. 전쟁 원흉인 김일성 은 적화통일의 백일몽을 끝내 실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 다/ 그 아들 김정일도 온갖 도발을 일삼다가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6·25가 뭔지도 모르는 애송이 김정은이 대를 이어서 무력도발 흥내를 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한해방’의 가치를 내걸고 소련의 무 기지원을 받아 일으킨 6·25전쟁은 북한의 ‘세기적 실책작’ 으로 끝났습니다/ 전쟁의 결과 역시 북한의 의도와는 거꾸 로 전개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구상 최빈국의 하나라는 꼬리 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쟁의 잣대미에서 다 시 일어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세계 10대 무역 국으로, G20 정상회의국가의 일원으로 도약했습니다/ 반면 에 호전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도발만 일삼는 북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수 지배층을 제외하고는 전 인민이 굶주리는 가운데도 무모한 핵실험과 미사일개발로 또 다른 6·25를 획책하고 있어 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참으로 딱한 사람들입니다/

딱한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6·25 전쟁이 북의 ‘남침’ 전쟁임을 구 소련도, 중국도 인 정하는 마당에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우리의 청년학생들과 일부좌경 지식인들은 ‘북침’ 전쟁으로 믿고 있다고 하니 기 막힌 얘기입니다/ 천안함 폭침도 남측의 자작극이라며 UN 에까지 가서 시위소동을 벌인 이적단체도 있었고, 정부의 ‘폭침’발표를 0.001% 믿지 않는다는 정신 나간 대학교수 도 있었습니다. 애국가를 비웃고 적기기를 부르는 ‘골수 빨 갱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말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심각한 적전분 열, 국론분열의 현실을 통렬히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해 야 할 때 입니다/ 다부동, 낙동강, ‘철의 삼각지’, 백마고지 등 옛 격전지를 찾으면 말없는 적막만 흐릅니다/ 하지만 그 산하의 땅 밑에선 미처 피어보지도 못하고 숨겨진 전우들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시철망 아래 구 명 뚫린 철모의 주인공은 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다 말없는 냇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국론분열 없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날, 비로소 이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 값진 희 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 지에는 이런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수백 만 동족이 희생된 6·25 비극을 되새겨보면 이 말이 실감나 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 니다.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 다. 6·25전쟁 때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흘린 피가 바 로 그 대가입니다. [본문]

# 낙동강에서 다시 새긴 전승 감격 인천항에서

6·25 참전언론인등 본회회우 다수참관



경북 칠곡군에서 열린 낙동강지구전투 전승 기념행사.

## 낙동강 방어선 전투 재연행사

치열한 전투 속에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 장면이 63년 이 지나 그대로 재연됐다. 당시 아픈 역사와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9월 13일 오전 11시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둔치 일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들을 비롯한 6·25전쟁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 학생과 시민이 다수 참석해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며 당시 승리의 기쁨을 되새겼다. 행사 하이라이트인 ‘낙동강지구 전투’는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재연해 참관자들에게 그날의 감격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전투 재연에는 육군 201특공여단 장병 650여 명과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이 학도병과 국군으로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항공기, 낙동강 도하용 단정, 리본부교 등의 장비와 TNT 폭약

폭과 등 실전 같은 음향 및 시각효과를 통해 보다 생동감 있는 ‘전투장면’을 묘사해 깊은 감동을 주었다. 행사장에는 6·25전쟁 사진전, 북한 실상 알리기 사진전, 북한 침투장비 전시, 서바이벌 장비 사격 체험, 장병 피복 및 장구류 전시, 전투식량과 주먹밥 시식, 페이스 페인팅, 사랑의 엽서 보내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낙동강방어선 전투는 6·25전쟁 당시 망명정부 수립을 논의할 정도로 위급했던 전황에서 국군과 UN군의 투혼으로 방어선을 지켜냄으로써 반격작전과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단숨에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전투로, 공산세력의 팽창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최후 저지선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에 참석한 본회 회우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인천 상륙작전 성공 재연행사

1950년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지난 9월 15일 인천광역시 월미도 행사장에서 열렸다. 이날 전승행사는 최윤희 해군참모총장(현 합참의장)이 주관하고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등 인천시 주요 기관장과 참전용사, 시민·학생 등 2,5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과 임원진 30여명도 초청된 이날 전승기념식은 참전국 국기의 입장을 시작으로 해양소년단원 125명이 참전용사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하자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 모두 기립하여 박수로 환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절체절명의 순간 한미 해병대와 육군17연대를 비롯한 8개국 261척의 합정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했다”며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 행사가 국민 모두의 안보의식과 통일외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해군·인천시가 공동 주관한 전승행사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승기념식 직후에는 세종대왕함에서 해군 5전단장이 지휘하는 상륙기동부대가 인천상륙작전시 최초 상륙지점인 월미도를 대상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재연했다. 상륙작전 재연에는 한·미 해군 및 해병대, 육·공군 전력이 참가하여 대잠작전과 선견부대작전에 이어 해상 및 공중돌격을 실시하고, 후속돌격과 특수작전 모습을 재연함으로써 현대화된 우리 국군의 연합·합동상륙작전 능력을 과시했다. 특히 미 해군은 상륙함 1척(LSD-48, 16,300t), 공기부양정(LCAC) 1척, 상륙돌격장갑차

(AAV) 5대, 해병대 50명을 파견하여 행사를 지원했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15일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당시 낙동강전선까지 밀어닥친 북한군의 배후인 인천에 대해 실시한 상륙작전으로 제1단계 작전은 50년 9월15일 오전6시30분 미 해병 1개 대대가 먼저 월미도에 상륙하기 시작하여 작전개시 2시간 만에 점령을 끝냈다. 제2단계 작전은 9월15일 오후5시30분 미 해병 2개 연대, 한국 해병1연대가 참가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 제7보병사단, 제1해병사단은 인천을 점령했으며 이후 김포 비행장과 수원을 확보하여 인천반도를 완벽하게 탈환했다. 이후 마지막 제3단계로 한국 해병 2개 대대와, 미국 제1해병사단은 19일 한강을 건너 공격을 개시하고 20일 주력부대가 한강을 건너 26일 정오에는 중앙청에 한국 해병대가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작전을 마쳤다.

당시 참가전력을 보면 상륙군으로 미 육군 1개 사단, 미 해병 1개 사단, 한국 육군·해병대 각 1개 연대 등 총 75,000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합정 261척(미국 225, 한국 15, 영국 12, 캐나다 3, 호주 2, 뉴질랜드 2, 프랑스 1, 네덜란드1)이 참가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북한군 14,000명을 사살했으며 포로가 7,000명이었다. 이 작전에 승리함으로써 국군은 서울수복의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인민군의 후방 병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인천과 낙동강전선 사이의 인민군 약 20,000명은 고립되어 연합군에 의해 섬멸 당함으로써 수세 입장이었던 전쟁의 방향을 공세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



낙동강지구전투 전승기념행사에 참여한 장병들이 낙동강을 건너 밀려오는 인민군에 대해 방어선을 구축하고(위) 육탄전을 벌이는 장면을 재연했다.

글·정운중 상임이사 사진·이철영 편집위원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에서의 낙하산 침투장면.

# ‘채동욱 사건’ 진실규명 막는 음모론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조선일보의 9월6일 톱기사 보도로 언론과 정가, 검찰이 격동했다. 그의 미지근한 첫 해명이 의혹을 증폭시켰다. 충분한 근거로 판단했을 보도에 일부 신문들은 ‘오보도 특종이나’고 비아냥댔다. 좌파지들은 사실 검증보다 ‘검찰 흔들기’라는 음모설을 펼쳐 야당과 함께 정치 쟁점화했다. 신문들은 ‘혼외자의 진실 여부를 먼저 가리자’는 주장과 ‘채동욱 짝어내기를 규명하자’는 2개 논지로 압축되었다.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보도가 음모설에 일조했다. 채동욱 논란의 배면에는 정보 수집과 방첩을 우선하는 국정원의 국가안보나, 아니면 국내 정치개입 의혹 처벌이 우선이나를 놓고 다투는 권력기구의 충돌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학적부, 혈액형, 출국기록 등을 수사기관이 제공했다는 설도 나왔다. 11살 아이의 어머니 임모 여인은 조선에 보낸 극히 세련된 편지에서 “식구들에게까지 (채 총장이 아이 아버지인 것처럼) 얘기해 온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앞으로도 밝히지 않겠다”고 썼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로) 본인과 가족 나아가 검찰 조직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피해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므로 보도 내용을 정정하라”는 청구문을 조선에 보냈다.

## 세간의 시선으로 쓰는 사설?

조선은 11일 사설 ‘검찰총장의 처신과 판단’에서 “검찰총장은 사생활 보호 원칙을 내세워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중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학적부의 아들 아버지를 ‘그 누구’로 기록하는 것이 세상에서 흔한 일인가도 되돌아봐야 한다. 검찰총장의 사적 물의를 ‘검찰 조직의 명예’ ‘검찰 조직의 안정’과 결부하며 쟁점화하는 것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합당한 처신인지도 의문이다. 채 총장과 임씨의 관계는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니다. 그의 첫 공식 반응이 ‘나는 모

르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전국 검사 1,900여명을 지휘해 진실을 무기로 거짓을 드러내는 검찰총장의 당당한 자세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음모설에 경사된 경향은 16일 ‘채동욱 축출 공작’ 실체 규명해 책임 물어야 사설에서 “검찰과 정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채동욱 짝어내기’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말

##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 일부신문 ‘개인문제’ 취급 본말전도 윤색된 해설로 국민세뇌 도구 전략

안 듣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죄 없는 초등학교생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 설사 채 총장의 아들이 맞다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채동욱 축출 공작’의 실체를 밝혀 내 정부기관이든 언론이든 관련자 모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16일 ‘채동욱 짝어내기’ 불법공작 진상 반드시 규명해야 사설에서 “최근 이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소신껏 수사한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청와대와 국정원이 언론과 짜고 혼외아들 설을 던져놓고, 당사자가 유전자 검사까지 받게 되고 나오자 갑자기 초유의 감찰 카드로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는 게 세간의 시선이다”라며 불법공작의 근거를 불확실한 ‘세간의 시선’으로 돌려 설득력이 달렸다. 21일 MBC 여론조사 결과에서 채 총장 사퇴 논란과 관련, 응답자의 48%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라고 답했고, ‘정권에 의한 검찰 흔들기’라는 의견은 39.2%로 훨씬 적었다. 한겨레가 “혼외아들 논란이 검찰총장 개인의 윤리 문제라면 ‘검찰총장 축출 공작’은 사법체제의 한 축을 뿌리부터

흔드는 국기문란의 문제다”라고 썼지만 다수 여론은 달랐던 것이다.

## 정파적 입장 중시

우리 사회는 본말이 전도되는 사회로 변질되었다. 사실보다 먼저 입력된 정파적 입장에서 윤색된 해설을 중시하는 기형적 언론 풍토다.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건만 일부 언론은 항설에 기대 국민을 세뇌하는 도

구가 되려고 한다.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는 언론의 생명인 팩트 전달이 최우선이다, 첫째는 채 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와 음모설은 다음 수순이다. 동아는 16일 “채동욱 사건 ‘두 갈래의 진실 규명’ 필요하다”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문제’와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에 불만을 가진 쪽의 검찰총장 흔들기 의혹’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의 윤리성도 중요하지만 중립성 훼손이 있다면 역시 중대한 사안이다. 두 측면 모두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이철호 칼럼은 “우리 사회는 정치적 프리즘을 통해 모든 사안을 집단논리와 파워게임으로 굴절시킨다. 이런 음모론이 판치면 우리 사회는 후퇴한다. 오직 사실만을 쫓아야 한다. 지금 그 진리를 향한 길은 오로지 DNA 검사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 공수처 필요성 제기 안돼

고위공무원 인사청문회는 결격자를 가려내고 어떤 외압에도 견딜 강직하고 하자 없는 인물을 고르려는 법정신에 있다. 일부 언론은 ‘짝어내기’ 주장에

앞서 마치 향우회처럼 ‘과도 파도 미담만 나오더라’고 추켜세운 인사 검증 참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허술한 검증으로 먼저 국기를 문란시킨 것은 아니었는지 자성을 촉구했어야 했다. ‘팩트가 정의’라는 칼럼 내용도 있었다. 채총장은 직을 걸고 의연하게 유전자 검사를 즉각 실시함으로써 진상을 먼저 밝히는 대신 사표를 내면서 검찰 전체를 걸고 넘어졌다. ‘호위무사’라는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 속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는 검찰 간부의 말도 나왔다. 형벌 소추권은 검찰이 독점하는데 무슨 권력의 공포인가? 검찰이 권력의 공포다. 검찰의 중립성이란 미국처럼 주(州)검찰총장을 직선하지 않는 한 어렵다. 과거 법무장관 천정배는 종북 세력인 동국대 교수 강정구의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 검찰 중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올인하면서 왜 타 좌파 전직 대통령들의 불법 재산 은닉 여부는 수사하지 않는지 그 잣대를 묻는다. 9월22일 동아광장 ‘검찰중립이 불가능한 진짜 이유는?’이란 칼럼에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검찰이 진실과 정의를 독점하는 한 검찰 중립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검찰조직보다 국민을 훨씬 강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지검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타견을 밝혔다. 일부 신문이 사생활 보호를 운운했지만 고위공직자에게 사생활이란 없다. 부적절한 사생활이 법의 보호대상도 아니다. 의혹 고위공직자는 언제나 발가벗고 심판대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며 국민의 알권리이다. 9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1심 무죄가 깨지고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국무총리 한명숙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매도했다. 고위공직자의 범법마다 ‘정치적 외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면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서로 꾀발을 재는 권력기관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모든 공직 부패를 다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 문제를 지적한 신문은 유감스럽게도 없었다. [E]

## 감염자만 1,500만명 추정 결핵. 안심해도 되나

### 건강정보

현재 국가에서 집중 관리하는 질병은 각종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다. 환자수를 보면 암 환자 90만 명을 포함해서 159만 명이 4대 중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관심도에서 떨어지는 ‘결핵’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폐결핵’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놀랄만한 사실은 우리 국민 중 30%인 1,500만 명이 결핵균 감염자로

추정돼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 OECD국가 중 발병·사망률 1위

폐결핵은 매년 새로운 환자가 4만여 명이나 발생하고 있어 OECD국가 중에서 발병률과 사망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인 에스토니아 발병률의 무려 4배나돼 수치스런 이름의 ‘결핵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참고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발생 수는 평균 87명에 사망자 수는 10명인데 OECD국가는 평균 177

명 발생에 사망률은 2.1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균자가 많은 것은 6·25전쟁을 겪으면서부터인데 특히 노인층 발병률이 높고 20~40대도 사회활동에 따른 보균자와의 접촉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65세 이상이 33%차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 국민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린 감염병은 ‘결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에 신고된 결핵 환자 수는 3만9,545명으로 남자가 2만 2,705명, 여자 1만6,84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3배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80세 이상이 3,636명으로 가장 많고 70~74세 3,394명, 75~79세가 3,263명으로 나타나 결핵도

암이나 다른없는 질환처럼 관심을 갖고 몸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

### 어떻게 감염되나?

결핵은 기원전 7천년 경 석기시대 화석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질환이다. 주로 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 혹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들어있는 입자가 공기 중에 나와 날아다니다가 사람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 직접 감염되는데 대개 접촉자의 30%가 감염이 되고, 감염된 사람의 10%정도는 결핵환자가 되며, 90%의 감염자는 평생을 건강하게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발병한 사람의 50%는 감

11면으로 이어집니다.

# 전날 본 뉴스 다음날 되풀이에 짜증

9월 한 달도 우리는 대형 뉴스 쫓기에 버거워할 만큼 뉴스의 홍수 속에 지냈다. 그만큼 기자 특히 속보 경쟁에 피 말리는 방송기자들은 무더위 속에 땀을 흘렸을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특검 결과에 대한 후속 기사가 정치권으로부터 가능할 수 없으리만큼 쏟아졌다.

뒤 이어 이 대형 뉴스를 단숨에 뒤엎은 초대형 뉴스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 터져 나왔고 이 초대형 뉴스가 한참 열을 올릴 때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조선일보가 제기하는 바람에 기자들은 또 한번 혼쭐이 빠질 정도로 뛰어다녀야 했다. 정치권에서 이 모든 뉴스에 대해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폭로와 억측, 선동까지 가미해 덩달아 기자들도 정치인들의 입을 그대로 전달하는 행태가 지속됐다.

이런 가운데 버르고 별려 열린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3자회담 결과는 야당이 시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판을 벌이는 빌미가 됐고 국민은 왜 날마다 천막에 쭈그러 앉은 야당의원들을 뉴스에서 봐야하는지 뚜렷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답답해해야만 했다.

야당은 천막에서의 투쟁을 계속하면서 국회에 들어가 정기국회에서 ‘가열찬’ 정치 공세를 퍼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서 국민은 앞으로도 속 시원한 희망을 주는 뉴스는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방송평은 특정 뉴스나 제작에 대한 분석대신 일반 시청자의 시청 행태에 따라 방송 뉴스 특히 TV뉴스의 편집과 제작 관행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TV 시청자들은 TV앞에는 부릅뜨고 30분이고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뉴스를 정신을 집중해 시청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관심 가는 뉴스가 아니면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심지어 누워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하거나 식구들과 담소하면서 시청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TV뉴스 편집자들은 시청자를 확 끌어당길 수 있는 뉴스와 연성 뉴스, 흥미 있는 뉴스 등을 적절히 배치해서 다소 느슨한 자세로 뉴스를 대하는 시청자들을 TV 앞에 계속 붙들어 두려고 한다.

시청자들은 모두에 든 대형뉴스와 같이 관심 가는 뉴스나 케나 인질극 뉴스 같이 상황이 계속되는 뉴스는 이어지는 다음 뉴스 시간을 기다려서 찾아보게 된다. 새삼 얘기할 것도 없지만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인 방송 뉴스는 반복해서

뉴스를 방송함으로써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모자라는 기록성을 보충해 시청자의 뉴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방송사는 오전 5시 첫 방송(물론 밤샘 방송이 진행되지만)을 뉴스로 여는 것이 일반적인 편성이다.

그렇지만 이 뉴스는 스트레이트 뉴스이고 아침 종합뉴스는 공중과 방송의

방송시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반사이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저녁 7시에 나간 뉴스가 9시나 8시 메인 뉴스, 심야 종합뉴스를 거쳐 다음 날 아침 6시 종합뉴스와 아침 9시 30분 뉴스까지 반복 방송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전날 방송된 뉴스 아이템이 다음 날 오전까지 방송된다면 분명 반복 방송할 가치가 있는 중요 뉴스일 터인데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인식돼 더더욱 재편집이나 재구성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달리 최근 각 방송사는 기상 뉴스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문기자를 통해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 등을 활용한 변화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돋보이고 있다. 더구나 같은 뉴스시간에 반복 등장하거나 출연할 경우도 현장이나 보조 화면에 변화를 주려는 열의가 느껴지고 그만큼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흔히 기자는 단순 노무자가 아니라고 한다. 자신의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독자나 시청자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삶에 희망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요구되고 있다.

기자들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는 엄격한 도덕성과 프로페셔널리스트로서의 능력, 끊임없는 자기 계발, 시청자에 대해 최선을 다 한다는 의무감 등이라고 본다.

특히 시청자에게 겸손해야 할 것이다. 방송뉴스의 특징은 속보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속보 경쟁에 있어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각종 SNS에 방송이 뒤지고 있어 속보 경쟁에서 누리던 독보적 위치도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각종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기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능력과 품성을 갈고 닦아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중문화가 힘을 갖는 요즘은 그 첨단에 있는 방송인이 대접받는 시절이다. 방송기자도 방송인인 만큼 방송기자도 점점 대접을 받는 시절이 되어가는 것 같다. 대접 받는 만큼 더욱 직업의식에 충실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과대평가에 혹해서 자기 취재물까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대접 받는 만큼 자신의 취재물이 다음날 아침에 다시 방송되는 아이템으로 결정된다면 데스크나 팀장의 지시가 없더라도 구성이나 화면, 인터뷰이 등을 재점검해서 재편집하는 열의와 정성이 바로 방송기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이자 품성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천편일률적인 방송 뉴스도 더욱 활기를 띠고 항상 살아 숨 쉬는 방송 뉴스가 돼 보다 윤택한 삶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4]

## 토씨하나 안틀리는 멘트-화면 반복 기상 뉴스 그래픽 활용등 변화 눈길

경우 6시부터 보통 1시간 반에서 1시간 45분 동안 매거진 스타일로 진행된다.

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가 증대되는 추세에 따라 공중과 방송도 뉴스를 자주 편성하고 시간도 늘려 매거진 스타일의 종합뉴스를 많이 편성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인 KBS는 아침 6시에 1시간 45분, 9시 30분에 30분, 정오에 1시간, 오후 5시에 20분, 7시에 30분, 9시에 1시간, 11시 30분에 30분 등 종합뉴스만 7차례나 방송을 하고 있다. 같은 공영방송인 MBC도 5회 종합뉴스가 편성돼 있고 상업방송인 SBS도 역시 5회나 매거진 뉴스를 방송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 시간은 이렇게 시청자가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편성돼 방송되지만 시청자의 뉴스 시청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느냐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물론 다른 뉴스시간을 놓치고 심야 시간대 뉴스만 처음 볼 경우 그 시청자는 방송되는 각 아이템이 진짜 뉴스로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9시 종합뉴스나 7시대 종합뉴스를 시청한 시청자가 흥미가 있어서 아니면 좀 미진한 감이 있어 좀 더 진전된 뉴스나 자세하고 정확한 뉴스를 보고 싶어 늦은 시간대의 종합뉴스를 다시 시청한다면 종종 실망하고 말 것이다.

진전된 뉴스나 보충된 뉴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전 시간대에 본 뉴스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화면의 뉴스가 방송되는 일이 다

변화도 없이 전날 편집된 뉴스가 그대로 방송된다면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이고 시청자로 하여금 뉴스를 외면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방송사들은 나름대로 9시나 8시 메인 뉴스와 심야 종합뉴스의 경우 차별화와 특성을 살려 심야 뉴스의 경우 취재 기자나 뉴스의 당사자를 직접 출연시키는 등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전날부터 계속 시청한 뉴스가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전날 편집된 화면 그대로 다음 날 오전에도 시청해야 하는 것은 고역이고 짜증나는 일 아닐 수 없다.

취재 기자나 리포터(대개의 경우 같은 사람)는 자신이 취재한 뉴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려면 반복 방송되는 뉴스가 진전이 없거나 변화가 없더라도 화면 재편집이나 녹음 또는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새 뉴스를 방송할 수 있는 열의가 있어야 시청자를 뉴스에 계속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이다.

똑 같은 뉴스 테이프를 돌리는 일이라도 흔해서 구체적인 아이템을 들 필요도 없겠지만 특히 스포츠 뉴스에서 이런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 같다.

물론 스포츠 특성상 경기 소식은 대체로 완전히 끝난 경기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스포츠 경기의 경우 한 번 본 장면이나 경기 결과는 누구에게나 강력히

분 감기로 생각해 감기약을 복용하며 지내는데 감기증상은 대개 1주일이면 호전되므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료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결핵환자와 같이 지냈던 사람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검진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 결핵 치료비 국가서 지원

보건소나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정부에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결핵환자의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결핵약은 1-2개월 복용하면 대부분의 결핵균이 죽고 기침, 가래와 같은 증상이 호전되는데 최소한 6개월은 약을 복용해 서서히 자라는 결핵균을 모두 살균해 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떻게 예방해야할까?

평소 충분한 영양섭취와 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특히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결핵 검진을 받고 기침이 나올때는 옷소매, 손수건,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핵환자와 같이 생활할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가까이 지내는 것을 피하고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 결핵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결핵은 유전병이 아니다. [4]

(도움말: 서울 중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이보길 편집위원

### 10면에서 이어집니다.

염후 1-2년 안에 발병하고 나머지 50%는 그 후 평생 중 특정시기에, 즉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한다.

### 결핵의 증상은 어떤가?

증상은 다양하다. 기침, 객담, 미열, 식은땀, 체중감소, 피로 등이 있을 수 있고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결핵에 걸려 기침을 할 경우엔 대부

# 세미나 · 특강 · 방송출연 ... 자산관리 전문

##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63)

회우초대석

홍  
인터뷰

“언론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눈에 불을 켜고 파고들어 누구보다도 해박하지만 자신들의 자산관리에는 무관심하고 무지한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홍용수 회장. 1980년대초부터 코리아리쿠르트 대표이사로 8년간 재직했고 그 후 한국경제 논설위원으로 10년간 모두 18년간 언론출판 분야에서 일했다. 그의 언론 경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방송출연을 포함하면 그의 언론 경력은 단순히 했수로만 헤아리는 게 무색하다. 세미나, 특강을 하러 다니느라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기업체와 대학, 공공기관에 초청되어 전국을 다니면서 기업엔 경영전략을, 대학에선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관한 특강을 했다. 진로와 취업지도 특강에는 대학생들이 언제나 구름 같이 몰려들어 한때 경찰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해 팔순을 맞았지만 10년 이상 젊어 보인다. 요즘에도 나이에 상관없이 NSI자산관리연구회회장 직함을 갖고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 세미나에 참석하고 강연을 하며 개인 자문을 하러 다니느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그의 지난 세월은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궤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누가 보더라도 연세를 80대라고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젊어 보이시는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비결이 있는 건 아니구요. 운동은 그런대로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주변을 3Km이상 걷기를 하고 집에서는 자전거 페달 밟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도 바쁘게 살고 있는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인으로서는 그의 경력은 다양하고 이채롭다. 영남대학교에서 법학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총무처에 들어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년간 인사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만 둔 뒤 대한알루미늄공업에서 총무 인사 감사 영업을 총괄하는 부장직을 맡아 3년간 일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계 한국회사 대표로 5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자랑 같지만 직장을 옮겨 다닐 때마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총무처에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 대표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 전국학술토론회(1961년2월4일)에 나가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면 총리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대한알루미늄에서는 박정희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울산공장 준공식 행사 책임을 제가 맡아 치르기도 했습니다. 5개월에 걸쳐 행사 준비를 두루 지휘하고 대통령 앞에서 준공식 사회를 보았습니다.”

—언론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었습니까.

“1982년 코리아 리쿠르트 대표를 맡으면서 언론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코리아 리쿠르트는 81년에 설립

된 인재채용 전문회사입니다. 대표 취임 직후 국내 최초의 고용정보지 ‘월간 리쿠르트’를 비롯, 각종 정보지를 발행, 전국대학에 배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창안, 거행했습니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또 어떻게 부임하게 되셨습니까.

“논설위원이 된 사연을 말씀드리려면 리쿠르트 사장 때 애기를 좀 해야하겠습니다. 89년까지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대학과 기업간 전국취업합동설명회를 매년 개최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비롯, 전국 주요 도시에서 취업설명회가 열릴 때마다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연간 1백여개에 이르는 전국대학별 초청 취업진로특강에도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리쿠르트 주최 행사에는 언제 어디서나 대학생들이 구름 같이 몰렸습니다. 제 이름이 알려지면서 방송국에서 출연요청이 쇄도, KBS ‘직업의 세계’ MC를 하는 등 여러 방송국에 출연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한국경제에서 저에게 인사 고용 직업 분야 담당 논설위원을 하면서 관련 사업을 하자며 적극



팔순 나이에도 자산관리 전문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홍용수 회우가 살아온 궤적과 오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 공무원으로 사회 첫발 ... 인재 채용 전문회사차려 90년대 KBS라디오 경제프로 진행 ... 요즘도 강연

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홍 회장이 전하는 1980년대 대학생 대상 설명회 개최 당시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3천여명의 대학생들을 초청, 설명회를 가져야 하는데 경찰이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아 치안본부(경찰청 전신) 학원반에 사를 내리 찾아가 경찰을 설득한 끝에 겨우 행사를 치렀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모여 청와대로 몰려갈 것을 우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 부산에서도 기업체와 대학 합동으로 취업설명회를 갖기로 한 하루 전날 집회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해 온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온다는 이유 하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당국에서도 홍 회장 측의 대학생 대상 취업 설명회의 순수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돼 경찰의 감시와 규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리쿠르트 사장직을 그만두고 논설위원을 맡으신 이후 활동이 궁금하군

요.

“논설위원을 하면서 강연 방송출연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1990년부터 93년 사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한 시간 동안 KBS라디오 ‘경제전망대’ 프로 MC를 진행한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직업의 세계’ TV MC를 맡아 방송을 진행했던 일과 함께 ‘경제전망대’ MC는 저에게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들어온 통신기사와 국내외 경제 경영정보를 취합하여 코멘트를 곁들여 방송하는 것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네트워크를 생방송으로 연결해 해외 경제동향을 알아보고 국내 업체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전달하느라 항상 촉각을 세우고 긴장의 나날을 보내느라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방송을 듣고 내용이 좋다고 칭찬과 함께 격려를 보내올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홍회장은 KBS 뿐만 아니라 MBC, SBS, CBS 출연을 포함하면, 언론출판 분야에 종사한 18년간 방송출연만 1천5백여회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인력정책심의회 고용대책위원,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 자문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관경영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1999년 66세에 논설위원을 그만두고 한양대학교에서 경제경영분야 겸임교수를 잠시 하면서 그 뒤부터는 아예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세미나를 주관하거나 특강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NSI자산관리연구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국가경영전략연구원(National Strategy Institute·NSI) 산하의 자산관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 모임입니다. 7년전 대전과학단지 등을 순방하고 귀경길에 버스 안에서 어느 회원이 저더러 자산관리에 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해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 즉석에서 설명 겸 해설을 했더니 자산관리

# 문가로 맹렬한 활동

榕秀

-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 전 한양대 겸임교수
- NSI 자산 관리 연구회 회장

부 : 글 =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세종대 석좌교수)  
사진 =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연구모임을 만들자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회원들끼리 자산관리 정보를 교환하고 매월 한 차례 이상 세미나를 갖습니다. 현장방문도 하구요. 한편으로는 기업체와 대학,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로터리클럽, 일반인 등을 상대로 자산관리와 채테크 특강을 합니다. 최근에는 9월10일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에서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과 NPL(Non Performing Loan·무수익 여신 혹은 부실채권)사례, 금, 은 투자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9월6일

했습니다. 노후준비가 안 되었으면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홍 회장 자신은 자산관리와 채테크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모으셨습니까.

“정신 없이 뛰어 다니다 보니 자신의 자산관리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투자로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먹고 살만큼의 돈은 있습니다.”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는 2020년까지 매년 0.5%씩 내리고 전세값은 평균 7.8%씩 올라 2021년에는 전세금이 집값보다 더 비싸지리라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의 분석전망입니다. 저출산과 노령인구 증가 등 요인을 감안할 때, 개발지구 등 특수 지역을 제외하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나 임대업자는 부동산 값이 하락하는 경우를



배기하고

1986년10월5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코리아 리쿠르트 주최 전국소회 회사합동설명회에서 대학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홍용수 회장.

## 언론과 인연맺어 인으로 바뀐 나날

엔 김광희 동우회 회장 초청으로 전직 동아일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설계와 채테크’ 주제의 특강을 했습니다.”

—홍회장의 요즘 하시는 일은 말하자면 은퇴 후 사회봉사활동으로 자산관리 요령을 전도하러 다니신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시게 된 어떤 동기나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15년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시골 땅을 어떤 사기꾼이 팔아 먹었어요. 매도한 땅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세무서 고지서가 날아와 서류 일체를 위조해 팔아 넘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을 해서 되찾아 오느라 애를 먹었어요. 변호사도 없이 혼자 공부하면서 소장을 작성했는데 담당 판사가 아주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면 당합니다.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라고 빌 게이츠가 말

생각해야 하고 주택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필수사항 몇 가지를 소개해주시죠.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유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자산운용은 환금성과 안전성, 절세문제가 우선돼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도 권장할만 합니다. 60세 이상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먼저 사망해도 나머지 한 사람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금리가 아주 낮습니다. 은행 금리만 갖고선 생활하기가 힘들데 퇴직금등 노후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 상호금융권 예금에 들거나 특관환매채권(RP)을 사들여 이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비과세보험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세금회피 수단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예금을 빼내 장기저축성보험 등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한

##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②

### 건강하려면 수염을 길러라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을 감소시킨다.) 꽃가루나 먼지에 의하여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 코 주위의 털이 꽃가루나 먼지의 많은 양을 막아 주어 증상을 많이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피부과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노화의 증상을 완화 해 준다.> 햇

빛 차단뿐만 아니라 바람과 찬바람을 막아주어 얼굴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 주며 보습제를 바를 때 맨 피부에 바른 것 보다 오래 수분을 유지해 주어 노화 증상을 완화해 준다.

<몇몇 질병의 예방을 도와준다.> 턱과 목 밑에 자란 수복한 수염은 목의 온도를 높여 감기와와의 싸움에 도움이 된다고 버밍햄 모발학 센터(Birmingham Trichology Centre) 두발(頭髮) 전문가인 캐롤 워커(Carol Walker) 박사가 말했다. 수염은 열(熱) 차단제로서의 역할을 해 겨울에 따뜻하게 해 준다. 겨울에 수복한 수염은 목을 따뜻하게 해 주어 감기예방에 도움을 준다.

<감염을 줄여 준다.>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면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면도를 하는 것은 목, 턱 그리고 얼굴 염증의 가장 많은 원인중 하나다. 면도를 하면 피부 모낭염(folliculitis)의 원인이 되며 종종 심한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4]

건강하려면 수염을 기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다. 수염이 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수염은 얼굴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피부암을 예방해 준다고 했다. 또한 영국의 피부과 전문의 닉 로웨(Nick Lowe) 박사는 사람의 털은 일반적으로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준다고 했다. 얼굴의 수염은 마치 자외선차단제(SPF)와 같은 효과가 있어 털이 많고 넓게 퍼져 있을수록 SPF 효과는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수염은 천식이나 알레르기 증상

도가 과세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엔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 두기도 하고 원금이 보장되면서 연4~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은행금리가 낮아지면서 금과나 현찰로 보유하려는 자산가도 많은 걸로 압니다.”

—증여와 상속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유의할 점을 소개해 주시죠.

“노후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사후를 대비한 자산정리를 위해서도 증여 상속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유세나 상속세를 절감하고 가족간의 불화나 유류분 청구 등을 예방하여 가족간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꼼꼼히 따져 볼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증여는 한 사람에게 재산명의를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증여재산공제액)이 종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나이트 사람들의 자산관리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업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의 사업에 보증을 선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 해 주는 게 상책이지요. 주식에 직접투자 하는 건 삼가고 어떤 경우든 원금에 손해가 가지 않는 간접 투자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대한언론인회에는 어떻게 가입하셨습니까.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의 소개로 알게 된 김준하 전 강원일보 사장님(전 청와대 대변인)과 로타리클럽에서 만난 신우식 전 서울신문 사장님 추천으로 가입했습니다.”

홍 회장은 대한언론인회에 노후생활설계와 자산관리에 관한 글을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취미는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에는 등산과 여행이었는데 요즘엔 영화감상과 사진촬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인과의 사이에 1남 2녀와 4명의 손주들을 두었다. [4]

# 우리것 아닌 말과 글이 판친다

## 우리의 말글 소멸위기

우리 말글의 아름다운 모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다음은 6월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뇌과학을 전공한 KAIST 교수의 글이다. 그 일부를 발췌했다.

“기원 후 100년에서 150년 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들은 세상 종말에 있을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간의 전쟁을 예언한다. 물론 자신들을 ‘빛의 아들’로 부르던 에세네파들과 침략자 로마 군사들 간의 전쟁을 말하려 했던 것일 것이다.”

흔히 쿠파란 사본으로 일컫는 사해문서의 일부인 ‘전쟁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매우 흥미진진한 얘기이다. 그런데 내용만 흥미진진할 뿐 읽는 사람은 그다지 흥미 속으로 빠져들지 못한다. 왜 그럴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히 한글로 썼는데도 우리글이 아니어서 몇 번을 읽어도 심금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아마 필자는 자연과학 전공자로서 인문과학에는 다소 등한했을 수는 있다. 또 영어로만 말하고 가르치고 배운다는 KAIST이기에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고 친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에 어법이 있고 문법이 있듯이 우리말과 글에도 엄연히 어법과 문법이 있다. 굳이 우리말로 글을 쓰려했다면 당연히 우리말글의 테두리를 지켜야 독자와 의사가 통한다. 그래야 설득력 있는 글이 된다.

모든 명사는 반드시 단수와 복수를 명확히 구분해서 써줘야 말이 통하는 영어에서는 예를 든 문장에서처럼 ‘문서들 아들들 자신들 에세네파들 군사들’이라고 표기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말글은 어떤 일인지 단수복수 개념이 극히 희박하다. 이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명사가 단수인데도 복수처럼 통용하고 복수인데도 단수처럼 쓰인다.

## 명사의 지나친 복수표기

이것이 우리말글과 영어의 근본적인 차이인데 우리말글을 애써 영어식으로 표현 표기하려는 못된 습관이 공부 깨나 했다는 사람, 외국에서 학문을 했다는 사람에 의해서 전파 확산되고 있다. 매우 위험천만한 언어습관이다.

‘모처럼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다.’ 소위 문법상 문제가 없는 표기이지만 내용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가족들’이라면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의 가족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혹은 아버지가 여러 세대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요즘 학생들의 가방들과 소지품들을 검사해보면 음란문서들이 많다.’ 왜 말끝마다 ‘들’이라는 복수표기가 따라다닐까. 혹 그것이 정확한 표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

‘요즘 학생의 가방과 소지품을 검사해보면 음란문서가 꽤 많다.’ 이렇게 본래의 우리말글로 바꿔 써보니 이해도 쉽고 숨도 편하다. 다음 기회에 언급하겠지만 이는 우리의 여백미학과 3·4조 같은 음운체질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글은 단수의 단어가 복수의 의미를 포함한 것이 많으며 굳이 복수로 표현코자 할 때는 ‘때’ 같은 별도의 접미어를 붙여 사용한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면 그 가족은 다수로 구성된 복합체다. ‘별 때의 습격을 받았어!’라고 하면 수많은 별을 지칭하는 말이다.

## 수동태 표현의 남발

‘저기 보여지는 산이 남산입니다. 심어진 나무는 대부분 소나무들입니다. 꼭대기에 세워진 팔각정은 50년 전에 새로 지어진 것으로……’

‘경주 금강총에서 발굴되어진 유물입니다. 쓰여진 글자를 보면 신라의……’

요즘 우리가 쓰거나 흔히 듣는 우리의 말본새다. 우리 본래의 언문은 물론 세계의 어느 문자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어법이다. 혹자는 영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하나 엄격히 말하면 영어에 이러한 표현기법은 없다. 이러한 출처불명의 ‘피동형 동사’ 표현기법이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말에 정착된 것일까.

근질근질 추적결과 짐작되는 대목을 찾았다. 기독교 서적이었다. 외국서적의 번역물, 국내 신학자의 창작물, 신학교의 교과서를 들추어보니 ‘드러진 예물’ ‘여겨지면 아멘’ ‘지어진 성전’ ‘보여진 행위’ 등 예의 피동형 동사의 남발이 부지기수였다.

현대의 교회에서 이뤄지는 설교의 99%는 바로 이 피동형동사가 남발되고 있는 현장이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되어진 내용을 보면……’ ‘모여진 성도들’ 등. 더욱이 놀라운 것은 신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전혀 성경언어가 아닌데 말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소위 외국에서 신학 또는 목회학을 전공했다며 말끝마다 영어단어 한 두 개씩 곁들이는 설교자가 더 자주 피동형 동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엉뚱한 말본새는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널리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모두의 대단한 각오가 아니고서는 바로잡기가 매우 난망한 현실이다.

피동형 동사의 전파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각 TV 방송사의 앵커와 리포터, 작가다. 그리고 한줄 자막과 번역자막을 생성해 내보내는

## ■ 한글날을 맞으며 ■



### 최병요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 어법의 구조가

## 사고를 변화시켜…

## 英·美식으로

## 자꾸말하면

## 우리의 혼도 잃게 돼

자들이다. 애당초 리포터 자격이 없는 철부지 연예인들이 시시각각 나타나 우리의 어법과 문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멋모르는 청소년들은 무작정 흉내를 내고…….

‘경복궁이 지어진지 벌써……’ ‘심겨진 나무가 계속 자라서……’ ‘우리말로 쓰여진 이 책은……’. 이게 우리나라 방송사의 보통 앵커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가관인 것은 한줄 자막이나 번역자막을 내보면서 ‘머칠을 기다려도……’ ‘잘 지어진 집은 몇 채 되지 않고..’ 등의 언어실력으로 방송을 꾸미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말에는 ‘지어진 건물’ ‘쓰여진 책’ 등의 타동사와 수동태 표현이 거의 없다. 국어사전에 ‘보여지다’ ‘지어지다’ ‘쓰여지다’ ‘여겨지다’라는 단어는 없다. 또 영문법에서 수동태를 쓰려면 일반적으로 ‘~에 의해서’라는 문구가 따라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말식으로 생략해버리니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지은 지 600백년이 넘는……’ ‘최초로 순 우리말로 쓴 소설입니다.’ ‘남산에 심은 소나무는 줄잡아……’ ‘좋다고 여기면 예라고 하세요.’ ‘지금 드리는 예물이 뜻대로 쓰이길……’ 이게 우리말의 바른 모양새다.

## 가장 높은 산 중의 하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 깨나 하고 글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우리말이 아니다. 영미에서 흔히 쓰는 ‘No matter how stressed.’ 또는 ‘too~ to’용법을 유식한 체 하느라 흉내 낸 표현이다. ‘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우리말로 해도 충분하다. ‘가장 높은 산 중의 하나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 중의 하나다.’ 이 역시 영어의 ‘one of the highest mountain’, ‘one of the most famous person’을 본받아 우리말처럼 쓰고 있지만 우리말에는 그러한 표현방식이 없다. ‘아마도 제일 높은 산입니다.’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 고유의 표현을 써도 의사가 충분히 전달된다.

‘오늘 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꼭 해야 한다.’는 우리말을 멋있는 표현인 줄 알고 일본식 표현인 ‘なければ いけない.’를 흉내 내 쓰고 있다. 우리의 말에서 일본어 단어인 ‘다구양’ ‘헨포’ ‘와르바시’ ‘요이똥’ ‘요시이’를 제거했다 해서 언어의 탈 일본화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요사인 아침인사로 ‘좋은 아침!’하고 소리친다. 주로 청장년층에서다. 영어의 ‘good morning’을 본 딴 표현이다. 우리의 아침인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가 촌스럽게 보였던 모양이다. 요즘 외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한국말 ‘안녕하세요!’를 우리는 정작 기피하고 ‘좋은 아침’을 일상화하고 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정다운 말 대신 화류계의 속어인 ‘좋은 밤 되세요.’라고 태연하게 말한다. ‘어젯밤’은 없어진지 오래고 지금은 ‘지난밤(last night)’만 남았다.

## ‘다르다’와 틀리다’ 구분 못해

최근 MBN 뉴스특보에 출연한 김오남 변호사는 “국정원과 검찰은 틀려서……” 사건수사가 혼선을 빚는 것이라고 유식하게 설명했다. 아마 김변호사는 ‘갈지 않다’ 즉 ‘다르다’라는 말을 ‘틀리다’라고 표현한 것 같다.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이고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이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틀리다’는 wrong이고 ‘다르다’는 deferent다. 영어를 하면서 deferent 대신 wrong을 썼다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명색이 변호사다. 공부도 했고 어려운 사람, 무지한 사람의 편에서 변호도 해줄 것이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틀렸다’고 몰아세우는 사고방식으로 변호에 나선다면 이만저만 위태로운 게 아니다. ‘다르다’보다 ‘틀리다’를 선호하고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고도 태연한 사람들-여왕의 장삼이사(張三李四)라면 모르지만 지도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습관이라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TV출연자와 주위의 사람을 눈여겨보았더니 80% 이상이 틀린 줄도 모르고 즐겨 사용하고 있었다.

이의 근원을 굳이 파지자면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과당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을 무조건 틀리다며 몰아세우는 행태에서부터 비롯됐다. 정객, 정치꾼의 폐해가 나라말의 근본까지 흔들고 있는 것이다.

## 말글은 민족의 대표적 정체성

말은 사고의 표현이다. 어법의 구조가 사고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영미 식으로 계속 말하면 우리의 사고도 영미 식으로 바뀌어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일제 35년 동안 일본의 강압에 맞서 우리의 선열들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도 처절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말과 한글은 현존하는 세계 6,000여개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데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마구 쓰이는 바람에 근본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 말글은 소멸위기에 처할 지도 모르겠다. ☞

MBC

여러분의 MBC,  
여러분의 대한민국



〈MBC 2013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 대상

개체(사람)의 생명(수명)은 수태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써 끝난다. 시발로부터 종말까지 세팅된 타이머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당사자(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유전자가 간여한 그 시간이 사람마다 길이가 다른 정명(定命)이다. 정명이 개개인에게 허용된 시간이긴해도 오장육부, 조직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타이머가 멎게 되는 수가 있다.

타이머를 움직이는 힘, 곧 배터리가 바로 먹거리다. 사람이 섭취하는 먹거리의 양과 질에 따라서 타이머의 수명은 달라진다. 물론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노화(老化)에 의해 타이머의 구동력(驅動力)이 점차 떨어지고 병적노화에 의해 힘이 소진(消盡)되는 것이지만 먹거리의 힘이 크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먹거리의 힘, 곧 약성(藥性)으로 생리적 노화를 늦추고 병적노화를 멎게하고자 하는 것이 식료(食療)의 세계, 곧 본초학의 의도지만 과연 먹거리에 가장 적절하고 뛰어난 약성이 있는지 전문가가 아닌 여느사람이 가늠하기는 어렵다.

필자 또한 전문가가 아니다. 다만 관련서적을 있는 대로 섭렵하고, 겪었던 병치레를 먹거리와 섭생(攝生)의 힘에 의해 고치고자 했던 경험칙(經驗則)이 내가 쓰는 글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므로 읽는이 들은 취할것과 버릴것을 깊이 헤아려서 자신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바라게 된다.

‘신농본초경’으로부터 ‘식료본초’를 거쳐 ‘본초강목’에 이르기까지 내가 첫째로 먹거리의 약성에 주목하게 되는 대목은 ‘구복경신(久服經身)’이다. 별의별 효능이 열거되고 있지만 첫째가 ‘오래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구복경신’이 먹거리의 첫째가는 덕목(德目)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네 번째 회 『백수(白壽)의 조건』에 쓰였지만 건강장수의 보편적인 조건은 가볍다는 점이다. 몸이 가볍고, 식사가 가볍고, 마음이 가볍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가 가벼워짐에 따라 욕심도 점점 가벼워져서 염담(恬淡)한 경지에 있게 된다는 것인데 ‘염담’이란 ‘욕심은 끊고 편안하고 깨끗하게 있음’이란 뜻이다. 그것은 옛날 고승(高僧)의 심경이라 중생이 그런 심경(心境)을 지니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욕심을 줄일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나의 경험칙이다.

우리집에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두 개의 큰 장치가 부엌에 있다. 그 속에 늘 들어있는 먹거리는 오래된 것이 별로 없고, 다만 오래된 매실식초가 여러 병 들어있다. 외국산 먹거리는 없다. 몸(身)과 환경(土)은 다른것이 이니다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는 나의 먹거리 신조(信條)다.

내가 들고자 하는 먹거리의 첫째는 울무다. 울무는 맛이 없다. 딱딱한 곡식이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울무를 먹는 것은 맛보다는 약성(藥性) 때문이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81권의 ‘사료필기(史料筆記)’는 중국의 당(唐 618~907)대부터 청(淸 1644~1911)대까지 당대(當代)최고의 문인들이 쓴 자전(自傳)적 저록(著錄)이다. 견문기(見聞記)로부터 양생법에 이르기까지 백과사전적인 내용을 담고있는데 흥미진진하기가 소설을 읽는것과 같다. 사료필기 81권에는 내가 읽고 붙여놓은 색인이 500~600개에 달한다. 그 대목을 모두 읽었다는 표징이다. 그 속에서 울무의 약성을 상품(上品)정도가 아니라 ‘상지상상상품(上之上上品)’으로 가름한 것을 읽은적이 있다. 먹거리 중에 최고의 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울무의 약성은 약간 차(寒)고 독성은 전혀 없다. 첫째 효능은 ‘구복경신’이다. 본초강목에서 이시진이 풀여놓은 약성을 보자. 기(氣)를 돈우고 폐병을 고치며 당뇨병을 멎게한다(止消渴).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도우며(健脾益胃), 폐를 보하고 풍기를 없애며 습기(濕氣)를 이긴다. 울무의 약성중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고치는 기능이 있지않나 하는 점이다. 파킨슨병의 첫째로 나타나는 병징(病徵)은 운동장애다. 울무의 효능에 ‘근육이 비틀어지고 몸을 굽히고 펼 수 없는 병’을 고친다고 한 점을 주목한

##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2>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 약과 먹거리는 뿌리가 같다<中>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것이다.

울무는 현미와 탄 잡곡에 섞어 밥을 지어 먹을 이지만 나는 현미와 울무 한 숟갈씩을 불려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아침에 미니믹서로 갈아서 올리브 기름(EXTRA VIRGIN·첫물에 쥘)을 두른 프라이팬에 볶고 울무전병(煎餅)을 굽는다. 한쪽이 익으면 프라이팬을 흔들어서 전병이 움직이면 공중에 던져서 뒤집는데 때로는 연속해서 여러번 뒤집는다. 재미로. 사람은 본시 유희본능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이때 스스로 민망해서가 아니라 우스워서 웃는다. 웃음 또한 약이라 하든가?

건강에 관한 책중에 흔히 식사 수칙을 조식(粗食)이라 했는데 거친 조(粗)자이니 검소한 식사를 뜻하나 나에게는 조식보다는 소식(素食)쪽이 맞는 것으로 알고있다. 소식은 고기반찬이 없는 질박한 식사, 또는 채식을 뜻한다. 1990년 초판에 나온 중국의 의학자 오예민(伍銳敏)편저의 『약선(藥膳)』이란 보건요리(保

### 久服輕身-병을 고치는 먹거리들

健料理)책에는 울무에는 암세포에 대해 그 발육과 성장을 저해하고 죽이는 작용이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울무의 암세포에 대한 상해(傷害)작용은 완만하기 때문에 오래 복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구복살암(久服殺癌)’인가?

두 번째 먹거리는 잣이다. 잣을 우리나라 책에는 송실(松實)로 적고 있으나 중국책에는 백실(柏實)이다. 백(柏)은 잣나무 백자(字)다. 나무목(木)변에 흰백(白)자를 갖다댄것은 “모든 나무가 남쪽을 향할 때 오로지 잣나무만 서쪽을 향하기 때문이니 잣나무는 정덕자(貞德者)다.” 서쪽의 속성은 금(金)이요, 금의 빛깔은 흰(白)빛이니 잣나무 백자를 백(柏)으로 쓴다고 했다.

잣은 풍습(風濕·습기 때문에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병)을 없애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피를 돕고 땀을 줄이며 오래 살게한다. 또한 간장(肝)을 원택하게 하며 심기(心氣)를 기르고 정신을 편안하게 하며 뇌활동을 좋게 한다. 피부병인 움을 고친다. 내가 육류먹기를 중단하고 거의 채식주의자로 돌아서면서 영양을 생각한 첫째 먹거리가 잣이다. 잣은 예부터 산속에 은거하는 도인(道人)의 먹거리로 알려져 있다. 나의 경우 잣을 10년을 장복해도 살찌지 않고 몸이 가벼우며 나이 80을 넘기고도 바람처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밑천은 잣의 약성에 있는것 같다.

세 번째는 호도(胡桃)다. 사람을 듬실하고 튼튼하게 하며 살갗을 윤기있게 하며, 검은 머리칼이 나게하며, 혈관을 부드럽게 한다. 기(氣)와 피를 돕고, 명문(命門·명치)을 이롭게 하며 장을 윤택하게 하여 변비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 가래가 끓기 때문에 나는 여러해를 아침마다 식사후 반쪽씩을 먹었더니 피부가 윤택해지고 잦던 기침이 멎었다.

넷째는 녹두(綠豆)다. 녹두는 눈과 귀에 익은 먹거리라서 약성이 있을까 싶지만 ‘본초강목’에 상품으로 가름해놓았다. 장과 위를 두텁게(튼튼)하며, 녹두로 베개를 만들어 베면 눈이 밝아진다(作枕明目). 오장을

조화롭게 하여 살갗을 윤택하게 하고 녹두를 삶아서 그 국물을 오래마시면 당뇨병이 멎는다고 적혀있다. 나는 껌질을 달간 녹두를 불려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두 숟갈 분량을 미니믹서로 갈아서 올리브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구워서 녹두전병을 만들어 과일과 함께 식사대용으로 먹는다. 구울때 물을 녹두분량만큼 붓고 약한 불로 굽는다. 현미와 울무는 들어불기도 하나 녹두전병은 그런일이 없다. 일주일에 세 번쯤 아침에 먹는데 뱃속이 가볍고 허기지는 일이 없다. 녹두의 서늘한 기운이 껌질에 있기 때문에 나같은 열성체질에는 껌질 달간 녹두가 좋다. 몸이 찬 소음인(少陰人)에게는 껌질간 녹두가 좋다. 녹두를 만만하게 불일이 아니다. 옛날 시골 잔칫집에는 녹두음식, 곧 숙주나물이나 빈대떡이 빠질 수 없었다. 녹두에는 식독(食毒)을 푸는 해독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연뿌리다. 연뿌리를 반찬거리로만 알겠지만 약성이 대단하다. 몸을 보하며 정신을 기르고, 기력을 도와 백가지 병을 없앤다고 적혀있다. ‘구복경신’ 오래먹으면 몸을 가볍게 해서 생리적 노화를 멎게 하고 배고픔을 덜어 오래 살게한다. 십이(十二)경맥의 혈기를 돕고 근골(근육과 뼈)을 튼튼하게 하며 연뿌리를 썰어서 죽을 쑂어 먹으면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중국 복송의 유학자, 이른바 송학(宋學)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주돈이(周敦頤)의 애련설(愛蓮說)을 외우다시피해서 연뿌리를 즐겨먹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집 냉장고에는 언제나 1년 4시절 팔뚝만한 연뿌리가 여러개 들어있다. 싱싱한 생짜도 있고, 중탕기로 쥘 연뿌리는 종이와 비닐로 겹겹이 싸서 넣어두고 있다. 팔뚝만한 연뿌리를 반으로 잘라서 야채주스 한잔과 먹으면 한끼가 거뜰하다. 때로는 5cm길이로 잘라서 껌질을 벗긴 다음 잘게 썰어서 미니믹서에 넣고 월 야쿠르트와 함께 갈면 산뜻한 건강주스가 된다. 호밀빵 한 쪽을 구워서 보태면 한끼가 넉넉하다.

진흙속에서 살되 오탁(汚濁)에 물들지 않고 청정무구한 꽃 중의 군자라는 연꽃을 피워올리는 연뿌리의 공덕은 사람의 건강에 이바지함에서도 그 공덕이 같다 할 것이다.

여섯째는 생강이다. 생강은 중품(中品)이다. 따뜻한 그 약성은 오장으로 돌아간다. 풍사(風邪·감기)와 상한(傷寒·추위에 상해서 생기는 병. 감기 열병 폐렴같은 병), 두통, 코막힘을 고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비장도 돕는다. 생강과 대추와 감초(생강슬라이스 200그램, 대추 4~5개, 감초 3쪽)을 달여서 따뜻할 때 마시면 감기에 효과가 있다. 감기들었을때 뜨거운 생강 감초탕을 사기 컵에 담아서 양손 손바닥으로 감싸서 손바닥을 따뜻하게(20~30분)하면 감기를 쉽게 고친다. 나의 경험칙이다. 대추는 자양성분이 있어 정력을 도우지만 계속 많이 먹으면 이(齒)가 상한다.(多食損齒)

일곱 번째는 구기(枸杞)다. 중국의 의서에 오미자(五味子)는 씨앗을 뜻하는 아들 자(子)자가 붙어있지만 구기에는 자(子)자가 붙어있지 않은 것은 구기나무의 잎과 뿌리에도 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기나무 뿌리의 껌질은 지골피(地骨皮)라 하여 한약재로 쓰지만 구기나무의 진수는 씨앗인 구기자다. 대단한 장수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구기자다. 몸을 가볍게 하여 풍기(風氣)를 없애고 정기를 도우며 대·소장을 이롭게 하며 자신윤패(滋腎潤肺), 곧 콩팥(신장)과 폐를 돕는다. 영인장수(令人長壽), 곧 사람으로 하여금 장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가지 찜찜한것은 구기자 수확기에 벌레끼는 것을 막기 위해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암을 부를 수도 있으나 농약살포량이 적으므로 달이기 전에 뜨거운 물로 두 번쯤 부셔서 농약성분을 씻어내면, 펄펄 끓을때도 잡기를 덜어내기 때문에 괜찮다. 옛날 장수마을의 우물가에는 구기나무를 심었다고 전한다. 뿌리인 지골피의 약성이 우물물에 스며 들어 장수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고침〉지난번(첫회) 중간제목 「新農本草經에 365가지 食材수록」은 「365가지의 藥材와 食材수록」으로 고칩니다. ㉞



Global Power Leader

www.kosep.co.kr

# 웃음 꽃이 활짝~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발전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주)은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빛 -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기업,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의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희망UP! 프로그램                                                                                                                                                                                                         | 사랑의 울타리 전개                                                                                                                        | 에너지 복지사업                                                                                                         |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혈병 환아「희망나눔」 활동 전개</li> <li>♥아동권리학교 운영(서부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li> <li>♥천사데이 후원협약 및 1m/1원 천사걷기대회</li> <li>♥시각 장애인 '희망의 빛 되살리기' 치료비 후원</li> <li>♥주니어공학교실 개설 및 어린이 문예한마당큰잔치 개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아동센터 12개소 지정 및 후원</li> <li>♥연말 위문방문 및 후원물품 제공</li> <li>♥주니어공학 교실 및 발전소 초청 견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전화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설비 지원</li> <li>♥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아시아, 아프리카 태양광발전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농 상생을 위한「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시행</li> <li>♥지역주민 대상 「효행상」 제정 및 시행</li> <li>♥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li> <li>♥장학재단 운영 / 장학금 지급 / 교육기자재 지원 등</li> </ul> |

# ‘실버 파이팅’을 讚한다

지난 호에 조선일보의 『‘노인 폐기’ 주장을 탄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참 시원하다. 공감한다.”라는 칭찬과 격려 전화 여러 통 받았습니다.

## “비판의 명을 거두다”

잠깐 으쓱했으나 이건 아니라는 자성(自省)이 일었습니다. 몇 해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캐나다에서 온 목사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비판의 명을 거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비판의 명을 거두라”고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기자였고 비평의 글을 쓰고 품성이 뼈딱하단 걸 알 리가 없는 초면의 외국인 목사가 말입니다. 캐나다 목사의 그 기도가 이번에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탄’이 아니라 ‘찬’하는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실버 파이팅’을 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대한언론의 ‘찬란한 불꽃 실버파이팅’ 취재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열 분이 넘는 선배 회우를 찾아 인터뷰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짜증도 났고 힘들기도 했으나 한 분 한 분의 ‘실버 파이팅’을 통해 교훈적인 삶의 여러 모형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값졌습니다. 선배 회우들과 대화를 나누며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스크랩을 뒤져 봤습니다.

-화려한 경력은 역사에 담아두고 건강을 챙기며 나날이 새로워지는 부부금슬에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아름다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한글사랑. 나랏말 다듬기에 전념하는 우리말 지킴이 회우의 열정에 감복하기도 했습니다.

-한 우물, 미술 만 꺾다는 팔순의 회우는 지금도 미술 전문가로 큰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열적인 사회 활동. 평론 그리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그 때 마다 감복하고는 했지요.

-산골노인이란 별명과 백민이란 호를 쓰며 뒤늦게 등단해서 이상해 보일 정도로 열정을 풀어내는 8순의 시인 회우를 뵈고는 게을러진 자신이 부끄럽기 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찬’ 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선배 회우들의 “실버 파이팅”이었습니다. 지난 5월11일 KBS의 강연 100도C란 프로그램에서 경찰하다 퇴직하고 변신한 87살의 보험설계사 한상철씨가 토로한 자신감은 실버파이팅의 압축판이었습니다. “아흔도 젊다”고 외치는 그의 말이 아직도 큰 울림으로 남습니다.

하긴 90세가 넘어도 활발하고 건실하게 중소기업을 이끄는 사장님의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 봤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잠깐 못마땅했지만 아직 조선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3일자에 실린 “무리 이끄는 철새, 나이 들수록 最短직선 경로로 무리를 이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철새에서 〈빛나는 연륜의 힘〉을 확인했다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 결과는 지난 8월 30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 글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칼럼을 쓴 기자도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조선일보 잇단 노인찬양

우연의 일치이거나 오비이라일 테지만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노인을 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9월9일에는 1면 머리기사로 〈나이에서 일곱 살 빼라... ‘6075(65세~75세) 新중년’ 출현〉이라고 쓰면서 A4면과 A5면을 新중년들이 20년 전의 40대

## ■한마디■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수필가

나이 들었다는게  
자랑도 특권도 아닌데  
노인대접 받으려면  
공경받을 일을 해야

후반과 비슷하며 “난 젊다, 일하고 싶다, 활기차다.”라는 등의 기사로 전면을 채웠구요.

△9월10일에도 1면 머리기사로 〈275조 예금 新중년, 백화점의 ‘王 손님’〉이라며 아부로 보일 법도 한 기사를 썼는가 하면 A4면을 모두 “젊게 사는 6075, 새로운 소비주체로 떠올랐으며 늙은이들을 추켜올리는 기사로 도배를 했습니다.

△12일에도 A4면과 A5면에서 〈스펙 좋고 봉사정신 까지 충만한 新중년... 98%가 “더 일하고 싶다.”〉와 〈6075 일자리 늘린 나라들, 청년층 일자리도 함께 늘어〉란 타이틀 아래 일본과 OECD의 예까지 들어가며 길고 많은 글을 썼습니다. 게다가 A35면에서는 김상협 교수의 〈‘인생다모작 지원법’을 만듭시다.〉라는 기고문까지 실었습니다.

용비어천가 수준을 뛰어 넘는 보도의 연속에 머리동절해 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연휴가 시작되는 18일에도 A6면에서 은행장 퇴직 후에 농사짓는 노인과 미술 해설사에 도전하는 할머니 등의 예를 들면서 “내 정년은 내가 정한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쯤 되니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머리동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 노인들을 배려하고 용기를 심어준 조선일보에 일단은 감사합니다. 한데 뒷맛이 영 개운치가 못합니다.

## 어글리 늙은이 안돼야

過恭而非禮라고도 했는데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범이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면서 ‘어글리 늙은이’란 조어(造語)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리를 오가거나 지하철, 버스에서 노인들의 추한 모습들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며 등산복 차림의 여럿이 한 잔 마신 기분을 절제 없이 내뿜는 모습 등은 정말 흉합니다. 나이든 게 자랑이 아닙니다. 특권일 수도 없습니다. 노인이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공경을 받으려면 공경 받을 자격을 갖춰야 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도 가져야 합니다. 생물학적 나이만으

로 대접을 받겠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요즘 나이든 어른들이 해야 할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 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노인십계명을 클릭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소개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옮겨 봅니다.

1. 늙음에 저항하지 말고 평화롭게 맞이하자/ 2. 호기심과 관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배우고 공부하라/ 3. 지나치게 바라지 말고 봉사를 많이 해라/ 4. 몸과 주변을 항상 깨끗이 하라/ 5. 항상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라/ 6.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말라/ 7. 지난 일을 되풀이해서 말하지 말라/ 8.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습관과 능력을 길러라/ 9. 많은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라/ 10. 무리가 되지 않으면 많이 움직여라.

나이든 이들의 생활에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요기 12:12)에도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롭게 나이 들어야하고 오래 살려면 명철을 갖춰야 한다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는 자기 똥과 할 도리를 하는 늙은이들이어야 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폼 나고 멋지게 나이를 먹고 폼 나고 멋지게 모범을 보이는 ‘실버 파이팅’에 찬사를 드립니다. [필자]

## 나훈아의 사랑과 눈물



김두호

·분회 회우  
·전 스포츠서울 편집부국장

언제부터인가 가수 조용필의 이름 앞에 ‘가왕’(歌王)이라는 칭호가 따라 붙는데 또 한사람, 나훈아의 이름 앞에 그 칭호를 올려놓아도 전혀 모자람이나 어색함이 없다. K팝이 된 현대 한국 가요의 뿌리가 트로트인데 트로트의 현존 최고 가수라면 앞머리에 나훈아 이름부터 올리는 게 순서다. 나훈아를 두고 타고난 목소리, 천부적인 트로트 가수라고 극찬하는 시대가 적어도 4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까운 목소리의 천재형 가수가 자신의 재능과 기량을 발휘해 이어가지 못하고 수시로 여자문제가 제동을 걸어 활동이 중지되곤 한다. 30여 년 전 절세佳人(絶世佳人) 김지미 여사와 작별하고 소리없이 지금의 부인 정 여사를 만나 쥐도 새도 모르게 아들을 낳았을

때 선데이서울을 통해 세상에 가장 먼저 뉴스로 보도한 사람이 당시 서울신문사 기자로 재직하던 시절의 필자였다. 나훈아가 재기 앨범을 내고 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 그의 매니저가 뒤에 조용필의 매니저를 맡았던 서울기획의 이태현 사장이었다. 이태현 사장도 나훈아가 아들을 낳은 사실을 필자의 기

사를 통해 알게 되어 다른 신문사 기자들에게 호되게 질책과 수난을 당했다. 지금도 어쩌다 필자를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필자는 나훈아보다 조용필과 가깝게 지낸 시간이 많다. 조용필과는 서로의 집을 방문해 가며 술잔을 나누기도 했지만 나훈아와는 그가 일본 데이치쿠

(帝蓄) 음반회사에 전속이 되어 일본에 진출했을 때 현지 취재 중에 함께 보낸 시간이 기억에 남는 정도이다. 오히려 필자는 그의 사랑했던 여배우 김지미 여사와는 배우와 기자 사이로 오랜 친분을 나누어왔다. 김지미 여사는 자신이 먼저 과거 얘기를 끄집어 내는 법이 없었지만 어쩌다 간혹 사랑했던 남자 이야기 나오면 마지막 남자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서운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있었다. 시끄럽게 만나 사실혼의 부부로 살았던 연하의 남자 나훈아에 대해서는 한번도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나훈아는 어쨌거나 그의 인생에서, 노래인생에서 활동을 멈추거나 어디론

19면으로 이어집니다.

## 溫故知新

### 지철로 마립간과 영제부인



황원갑

- 본회 전문위원
-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자

지철로마립간(智哲老麻立干)은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체통을 돌보지 않고 품격도 없이 ‘왕 노릇 못해 먹겠다’ 느니, ‘쫓 팔려 미치겠다’ 느니 하고 임금이 쓰기에는 체통 없고 경박한 말은 입 밖에 내뱉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속으로만 화를 삭이자니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다 보니 죽어 나가는 것은 신하들, 특히 임금의 비밀을 속속들이 죄다 알고 있는 최측근들이었다. 예나 이제나 정계와 관계, 재계를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의 비밀을 많이 아는 측근은 여러 모로 매우 피곤한 법이다.

그러면 지철로마립간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연장’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도 한자 다섯 치나 났으니 어찌 놀라지 않으랴. 지철로마립간은 이처럼 돌연변이라고 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거시기’를 달고 있으니 알맞은 배필을 구할 수 없었다.

서기 500년. 지철로마립간이 육촌형이던 전 임금 소지마립간(炤知麻立干)이 재위 22년 만에 죽자 그 뒤를 이어 즉위, 마침내 대궐의 주인이 된 뒤였다. 즉위한 마립간이 가장 급히 착수한 과제는 배필을 찾는 일이었다. 마립간은 어느 날 신임하는 극소수의 근신들만 내전으로 불러들여 상담을 했다. 의제가 비록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사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대하다면 중대한 문제였기에 측근들은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자 대왕이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입을 열었다.

“하마(벌레) 신하들은 죄다 알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점점 퍼져나가니 하루 빨리 왕후 감을 찾아야 하지 않겠노? 경들은 당장 내일부터 두 명씩 조를 짜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찾아보그래이, 알겠노?”

신하들이 저마다 속으로는 ‘어디 그런 감이 있을까’ 하면서도 이구동성으로 “네이!” 하는 대답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마립간이 다시 부르더니 이런 지시를 덧붙이는 것이었다.

“내 참, 깜빡 잊고 있었구마. 다른 기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름을 말아 데이. 한 가지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하자 그 말아 데이. 도대체 나라는 하난데 이름이 몇 개나 되노 말아 데이. 서나벌·서벌·사로·사라·계림·신라, 이렇게 여섯 개나 된다 아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져 온 누리를 댔는 다’는 뜻을 가진 신라로 통일하자 그거 데이. 경들은 우찌 생각하노?”

“참말로 지당하신 말씀이라예!”

신하들은 쌍수를 들어 만세를 부르고 박수갈채로 적극 찬동했다.

“국호는 그렇게 정리됐고, 왕호도 바

꾸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도 이제부터 존시럽게 마리칸이라고 부르지 말기로 하자 그 말아 데이. 우리도 국제규격에 맞게 대왕이라 부르기로 하자 그거 데이. 옛날 박혁거세 시조 할배 때부터 불려오던 거 서간이니 이사금이니 마립간이니 하는 칭호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존시러운 칭호 아니가 그 말아 데이. 고구려와 백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야나 왜국 알라들도 성왕이니 명왕이니 태왕이니 대왕이니 안 카드나?”

“하모요! 참말로 때 늦은 감이 있십니더!”

그렇게 해서 이튿날 아침부터 대왕의 측근들은 팀을 짜서 서라벌 6부를 하나 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 대왕의 거대한 ‘거시기’에 꼭 들어맞을 거대한 ‘머시기’를 달고 있는 여자를 찾는 것이었다.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서라벌 주변을 살살이 뒤져나가던 특수임무대의 한 조가 모랑부에 이르렀을 때였다. 두 사람은 날씨도 후텁지근해서 좀 쉬었다 가기로 하고 마을 앞 냇가 나무그늘에 앉았다.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자니 근처에서 갑자기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짚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혹시 개를 잡으면 개장국이라도 한 그릇씩 얻어먹을까 하여 두 사람은 개 짚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개 두 마리가 ‘북만큼 커다란’ 똥 덩어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사납게 짚어대며 맹렬히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주변에는 모랑부에 사는 마을아이 대여섯 명도 구경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마을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알라들아, 느그들 저 똥의 정체와 유래에 대해 아는 대로 솔직하게 진술해 보그래이! 저 똥이 과연 사람의 똥인가, 짐승의 똥인가 말아 데이.”

“이히히히! 저 똥은예, 우리 마을 칸의 따님이 빨래하다가 숲속에 들어가서 몰래 싼 똥이라예! 우히히히하…”

“이눔시키들, 거짓 뿌리 하는 것 좀 보소! 가시나가 숲속에 들어가서 몰래 똥 싼 걸 우찌 알았노? 느그들이 다 큰 가시나 궁디 훑쳐볼라고 몰래 따라가서 보지 않구서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아이들을 앞세우고 즉시 그 마을 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문제의 그 똥 주인공을 불러보니 키가 무려 일곱자 다섯 치나 되는

거녀(巨女)였다. 척 보기에 시집갈 적령기인 열다섯 살은 물론 스무 살도 조금 더 넘어보였는데, 아무래도 체구가 워낙 커서 여태까지 시집을 못 간 듯했다. 처녀의 성은 박씨라고 했다. 모랑부는 원래 손씨네 마을인데, 현재 그 마을의 칸, 즉 우두머리인 처녀의 아버지는 자신이 시조 박혁거세거서간의 후손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두 사람은 바람같이, 쏜살같이, 비호처럼 대궐로 달려가 신나게 마립간, 아니 이제는 대왕폐하에게 보고했다.

“참말이제? 참말로 황후 감이 나타났단 말 정말이제?”

대왕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반색을 했다. 알맞은 신부 감을 발견했다는 반가운 보고를 받은 임금은 즉각 전용마차를 보내어 천생연분인 박씨 처녀를 모시고 오게 하여 거창하게 혼인식을 올렸다. 이 거녀가 바로 나중에 법흥왕(法興王) 김원종(金原宗)의 어머니가 되는 영제부인(迎帝夫人), 〈삼국사기〉에서는 연제부인(延帝夫人)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지철로마립간, 즉 지증왕(智證王)은 나이 64세에 즉위한 것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증왕이 나이 예순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이다. 지증왕이 즉위한 때는 서기 500년이다. 지금으로부터 1천 500여 년 전에 환갑이 넘도록 살았으면 매우 장수한 편인데 장가도 들지 않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지도로는 지대로(智大路), 지철로(智哲路)라고도 나오는데, 이는 신라 말 이름을 한문자로 기록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표기된 것이다. 〈삼국유사〉 ‘왕력’ 편에서는 지정마립간(智訂麻立干)이라고도 했다. 지증왕은 이 지도로왕 사후에 바쳐진 존호이다. 신라에서 사후에 존호를 바치는 것은 지증왕에서 비롯되었고, 그때까지 사라니 서라벌이니 하던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이사금이니 마립간이니 하던 왕호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지증왕 때부터였다. 순장을 금지한 것도 지증왕 때부터였다.

또한 이 지증왕 때부터 신라는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불리한 여건을 딛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당대의 영웅 김이사부(金異斯夫)가 오늘의 강원도 삼척 지방인 실직주 군주가 되어 오늘의 울릉도인 우산국을 정복한 것도 지증왕 때였다. 또 지증왕은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소를 이용한 농사법을 확산했으며, 서라벌에 새로운 시장을 개설하여 상업을 장려했다. 그리고 선박이용법을 제정하여 해운업을 장려하는 등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어쨌든, 지증왕이 즉위하기 전에 이미 장성한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둔 유부남이란 사실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고, 또 〈화랑세기〉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소지마립간 재위 시에 지도로의 장성한 아들 김원종, 즉 뒷날의 법흥왕이 국공(國公)이란 이름을 내걸고 신라 중앙정계의 실력자로서 현실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한편, 둘째 아들 김입종(金立宗)은 비록 임금 자리에는 오르지 못 했지만, 형인 법흥왕의 딸 지소(智昭), 즉 친조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삼맥종(彡麥宗)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곧 신라 최고의 영주로 꼽히는 진흥왕(眞興王)이다.

그러면 지증왕의 장대한 거시기 이야기는 어떻게 하여서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정통성이 결여된 즉위에 대한 보완작업(?)이었다. 즉, 적자도 서자도 아니고, 사촌도 아닌, 멀다면 먼 육촌형제로서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새 임금은 ‘거시기’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임금이 된 것이 당연하다는 사후(事後) 장치였던 것이다!

여차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강자가 승자가 되어 왕 노릇을 하던 고대 사회가 아닌가. 먼저 왕이 후사도 없이 죽었겠다, 그러지 않아도 오랫동안 부군(부왕)으로서 후계자 자리를 굳혀놓았던 지도로-지증왕이 ‘연장’도 크고, 머리까지 뛰어나니 다른 자들은 썩소리도 말라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했던 것이다. [4]

#### 18면에서 이어집니다.

가 자신의 거처를 옮겨 은거상태로 들어갈 때면 또 여자문제가 있는 듯이 세상의 입들이 멋대로 소문을 만들어내는 데 시달려왔다. 그걸 기자들이 추측 보도하고… 언젠가는 여자문제로 남자의 신체 일부를 폭력배에 의해 상실 당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양 나돌았다.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무근임을 밝히기 위해 오죽하면 단상에서 하의를 벗어보

겠다는 시도까지 했겠는가. 그런 점에서 그는 세상 사람들의 말장난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온 불행한 가왕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그는 대체로 올바른 사고와 처신을 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나 판단력이 분명한 자존심 강한 남자라는 사실이다.

연상의 여배우 김지미 여사와의 만남과 이별이 특별한 화제를 만들어내면서 그로부터 그를 둘러싼 여자 이야기들이

쉬지 않고 등장했다. 최근 유학간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부인 정여사가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부인이 주장하는 남편의 새로운 여자문제 등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 여사도 이제 50대를 넘어 섰고 아들도 성인으로 자랐다. 나훈아는 가정을 버릴 생각도, 가족과 헤어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소송을 통해 입증해 보였다.

그는 주변사람들에게 가정을 원상태로 회복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 같다. 코스모스 피는 계절이 돌아오면 그의 노래 〈고향역〉이 입 안에서 절로 흘러나온다. 40여년 노래로 사람들의 시름을 달래주고 즐거움을 선물한 가왕 나훈아의 남은 인생이 이제는 소문으로 나도는 여자문제에서 벗어나 그가 바라는 가정에서 행복과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4]

## 신임회우 환영합니다

### 강한필(姜漢弼)



1935년 9월 15일생  
(우 448-13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현대파인빌리지 202-801  
전화 031-266-7446 / 011-495-7446  
(경력) 서울대 사범대 졸. 경향신문 입사(65), 사회부장, 외신부장, 부국장대우 사회부장, 편집국장, 광고국 이사, 논설위원, 불교방송사장(직대), 한화그룹 감사

### 권기진(權基鎭)



1942년 10월 18일생  
(우 156-060) 서울 동작구 본동 494 래미안트윈파크 101-403  
전화 02-510-9557 / 016-223-9557  
(경력) 경북대 법정대 정치학과 졸. 서울신문사 편집국 사회부기자(68), 출판본부장(96), 세계섬유신문 발행인(98), 그린케어 대표(2002)

### 김종일(金鍾一)



1942년 8월 5일생  
(우 463-750)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셋별마을 우방아파트 313-801  
전화 031-706-9315 / 010-8708-9315  
(경력) 중앙대 신방과 졸. 서울신문사 입사(69), 지방부장, 사회부장, 체육부장, 편집부장, 편집부국장, 통일안보연구소 소장, 스포츠서울 편집국장(98)

### 김문진(金文鎭)



1940년 10월 25일생.  
(우 448-13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현대파인빌리지 202-802 전화 031-265-4485 / 011-284-4036  
(경력) 서울신문 견습 11기 입사(65), 사회부장(83), 편집국장(87), 전무이사(93), 사장 직무대행(98), 서울신문 사우회 회장(현)

### 나형수(羅亨洙)



1939년 10월 26일생.  
(우 448-549)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66번길 27 진산마을 삼성7차 아파트 705-703 전화 031-266-5708 / 010-8704-8034  
(경력)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졸. KBS보도실 기자(67), KBS보도본부 해설위원장(97), 방송위원회 사무총장(2002), 교육방송 감사(2004)

### 노진호(盧鎭浩)



1937년 9월 14일생  
(우 448-13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 2동 상현 3차 604-1204  
전화 031-272-2320 / 010-2328-2309  
(경력) 서울 문리대 중문과 졸. 중앙일보 1기 입사(65), 삼성야구단 단장(83), 한화야구단 단장(85), 한화 상무이사(93), 체육언론인회 초대 2대 회장, 동 고문(2013)

### 박세호(朴世鎬)



1943년 6월 25일생  
(우 138-798)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504  
전화 02-412-6731 / 010-2281-0625  
(경력) KBS보도국 기자(66), TBC 사회부기자(68), KBS보도국 체육부 기자(70), 체육부장(80), 체육담당 부국장(81), 스포츠제작국장(84), SBS 이사대우 스포츠국장(91), 스포츠본부장(96), 한국배구연맹사무총장(2003), IOC방송위원 (90-98)

### 박용배(朴涌培)



1939년 3월 20일생  
(우 143-210)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11동 1004호  
전화 02-446-3135 / 010-9234-7625  
(경력) 한국일보 입사(64), 사회부 기자(65), 정치부장(80), 논설위원(81), 사회부장(84), 통일문제연구소장(87)

### 서정혁(徐廷赫)



1942년 10월 30일생  
(우 137-77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65길 13-10 서초동 서초래미안 아파트 113동 702호  
(전화) 02-535-8781 / 010-5282-8781  
(경력) 서라벌 예대 연영과 졸. TBC영화부 기자 입사(69), KBS 보도본부 영상취재 주간(97·국장급), KBS 전문 촬영기자(98·국장)

### 심상대(沈相大)



1942년 4월 28일생  
(우 448-749)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성원아파트 110-601  
(전화) 010-5222-6857  
(경력) 서라벌(중앙대) 예술대 졸업.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연세대 언론 홍보대학원 수료, 80년 해직기자, KBS경제부 차장, 광주방송총국장, 보도국장, 순천방송국장, KBS 보도국 보도위원, 방송보도 교양심의위원

### 이중세(李鍾世)



1943년 8월 17일생  
(우 151-855) 서울 관악구 서림동 108-1  
(전화) 02-885-4037 / 010-5232-0534  
(경력) 전북대 졸. 전북일보 기자(70), 동아일보 입사(76), 체육부기자(80), 차장, 부장(94), 사업국기획위원(97), 동아일보 사업국 국장(2003), 스포츠동아 이사(현)

### 최광일(崔光一)



1941년 1월 2일생  
(우 411-705)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11 성서 건영 1405동 103호  
(전화) 031-918-0820 / 010-4221-5096  
(경력) 연세대 법학과 졸. 서울신문 입사(67), 편집국장(93), 제작이사(98),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동 감사(99-2005)

### 함정훈(咸定勳)



1937년 3월 10일생  
(우 411-777)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동양아파트 109동 1801호  
(전화) 070-8635-0069 / 010-2864-9111  
(경력) 서울대 법대 졸. 대한일보 편집부기자(65), 서울신문 편집부기자(67), 차장 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87), 국민일보 편집국장(88), 제작이사(90), 국민일보 미디어 클럽

회장

7년 연속 세계판매 1위  
★★★★★  
2006-2012년 디스플레이  
서치기준 세계TV 점유율 1위

삼성 UHD TV의 놀라운 화질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구상에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당신의 눈앞에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털 한올 한올에서 주름 하나하나까지

세상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풀HD보다 4배 더 디테일한  
**UHD 화질의 자신감으로**  
**당신의 눈앞에 불러오다**

\* 마운틴고릴라는 멸종위기 동물로 현재 600여 마리만 생존해 있습니다



모델 : 65/55F9000

Discover True Detail  
**삼성 UHD TV**  
Ultra High Definition 4K

Full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초고해상도 **UHD 화질**  
일반 영상도 고화질로 보여주는 **쿼드 디테일 엔진**

미래 UHD 방송표준을 지원하는 **에볼루션 키트**  
완벽한 클린백 디자인을 완성하는 **One Connect**

(에볼루션 키트는 현재 예측가능한 UHD 연결방식, 방송, 블루레이 표준화 정책에 준해 지원 가능하며 별매임)

삼성전자 SAMSUNG

## 회우동정 가나다순

### 아시아타임즈 편집이사



김지용(전 한국편집기자 협회 회장)회우= 지난 7월 창간한 종합일간지 아시아타임즈 편집이사 로 근무 중. 010-3731-

9317

### 함경북도지사



박기정(전 동아일보 편집국장)회우= 지난 9월 함경북도지사로 임명됐다.

### ‘한미동맹의 미래’ 안보포럼



신동식(한국여성언론인 연합 대표)본회 여성분과위원장=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미안보연구회와 함께 ‘정전 60주년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 ‘열수 고성인’ 창간



심의표(전 KBS 해설위원)본회 이사= 재경고성향우회 회장이기도한 심회우는 지난 9월 1일자로 향우지 ‘열수 고성인’ 창간호를 발행했다. 9월 11일엔 서울군인공제회 회관으로 향우회 역대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초청, 만찬을 베풀었다.

### 예술의 전당 비상임이사



이정식(주 뉴시스 부회장)회우= 지난 9월 14일 예술의전당 비상임이사로 선임.

### ‘대한민국 특선 시인선’에 기고

이학주(전 한국경제 편집부장)회우= 대한민국 특선시인선 ‘꽃잎은 저도



향기는 남는다’(도서출판 예지 발행) poet profile 편에 자작시 4편을 기고.

### 대한민국 임정사업이사 선임



장두원(아시아투데이 부회장)회우= 지난 9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정정부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연차총회에서 임정사업이사로 선임.

### 사도대상·삼락봉사상 심사위원



정운종(전 경향신문논설위원)상임이사= 지난 9월 10일 11시 한국삼락회교육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13년도 한국사도대상 및 삼락봉사상 심사위원으로 위촉.

### ‘바른역사 국민연합’ 고문 추대



제재형(한국일보 사우회 회장)본회고문= 지난 9월 2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바른역사 국민연합’ 고문에 추대됐다. 바른역사 국민연합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현대사 교과서의 반미 종북사관을 시정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세우자는 NGO운동 조직으로 국내 540개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종편 TV조선 고정출연



최재욱(전 환경부장관, 전 국회의원)회우= 종편 TV조선 시사프로 ‘박찬희-정해진의 황금편지’에 매주 화요일(오후 5시 40분) 고정 출연.



괴산 산막이 옛길 입구에서 기념촬영.

## 괴산 ‘산막이 옛길’을 가다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28명 참가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정운종)는 지난 9월 24일 충북 괴산군에 자리한 ‘산막이 옛길’을 찾았다. ‘산막이 옛길’은 충북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총 길이 4km의 흔적만 남아있던 옛길을 복원한 산책로다. 옛길 대부분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살아있는 자연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막이 옛길’을 따라 펼쳐지는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은 청정지역 괴산의 백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7년 최초로 우리의 기술로 준공한 괴산댐 호수를 끼고 있는 ‘산막이 옛길’은 특히 등잔봉 천장봉이 장막처럼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생태계를 고스란히 간직한 값진 곳으로 모처럼 가을 산행의 정취를 만끽했다. 하산하면서 유람선을 승선한 것도 이날의 즐거움이였다. 모두 28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이번 산행에서 정운종 회장은 금일봉을, 최귀조 본회 이사는 대형 버스를 주선,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

(글·사진 이상호 사이버 위원장)

## 사우회 소식

### 제1회 회장배 바둑대회 성향

####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광희·본회 회우)는 지난 9월 23일(월) 오후 2시부터 사우회 사무실에서 제1회 동우회장 배 바둑대회를 개최, 성황을 이뤘다. 23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는 A조의 서병현씨, B조의 김홍묵씨가 각각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 서우회보 23호 발행

#### 서울신문

서울신문사우회(회장 김문진 본회 회우)는 지난 9월 1일자로 서우회보 23호를 발행했다. 컬러판 타블로이드 8면으로 나온 이달 서우회보는 ‘사이클 동호회도 창립’ 등 머리 기사를 비롯, 김동진 회우(전 서울신문 사진부장)의 특종기가 특히 눈길을 끈다. 서우회 여덟 번째 동우회로 고고의 성을 올린 ‘사이클 동호회’는 매월 첫째 토요일 정기모임을 갖는다.

등산 동호회의 청계산 정기산행 소식과 볼링, 바둑, 스크린골프 등 동호회 소식이 다채롭게 실렸는가 하면 매회 인기리에 연재되는 서우회 초대석과 ‘어떻게 지내십니까’가 돋보인다.

### 사우회보 137호 발행

#### KBS

KBS사우회(회장 정근)는 지난 9월 1일자로 회보 137호를 발행했다. 일자리 100여

개 제공을 약속했다는 KBS 소식을 머리기사로 한 이달 회보는 다양한 가을철 친목 행사 일정이 눈길을 끈다.

정 회장의 원로회우 초청 만찬 소식을 비롯, 여맥회의 서울 역사박물관 견학, KBS시니어 직능클럽 등 사우회 소식이 다채롭다.

이병대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기고한 추도사 “‘종군기자 사회부장, 빛나던 이름 이혜복’ 선배를 추모하며”와 윤재홍 본회 회우의 기고 ‘지금도 잊지 못할 25년 전 여름휴가’ ‘그때 그 이야기’도 보인다.

### 사우회보 22호 발행

#### CBS

CBS사우회(회장 조준택)는 지난 9월 1일자로 사우회보 22호를 내보냈다.

CBS기술인 OB회 ‘Home Comming Day’ 제정 소식과 권영국 본회 회우가 연재하고 있는 ‘우스꽝스런 실수로 빙고호텔 갈 뻔 한 이야기’가 돋보이는 이번호는 컬러판 타블로이드 4면으로 나왔다.

## 이도형회우 새잡지 ‘영 카페’ 창간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원로회우는 지난 8월 22일자로 교양·문화 잡지(월간) ‘영카페’를 창간했다. 뮤지컬 감독 겸 음악 칼럼니스트 황승경(36)씨가 편집을 총괄한다.

이회우는 “이 잡지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상호 이해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 주소·전화번호 변경

김은구 상담역= 전화 010-2476-7870

### 입회비·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가나다순·괄호안 납입연도)

|               |               |               |
|---------------|---------------|---------------|
| 강한필(입회비)      | 노진호(입회비)      | 이종세(입회비, 2013 |
| 권기진(입회비, 2013 | 박세호(입회비)      | 년 연회비)        |
| 년 연회비)        | 박용배(입회비)      | 이 휘(12)       |
| 권도호(입회비)      | 서정혁(입회비, 2013 | 임응식(12.13)    |
| 김문진(입회비)      | 년 연회비)        | 최광일(입회비)      |
| 김종일(입회비)      | 심상대(입회비)      | 함정훈(입회비, 2013 |
| 나형수(입회비)      | 이종석(11)       | 년 연회비)        |

## 10월 건강포럼 안내

제목: 손(手)을 통한 건강 증진  
강사: 송 보 정 노인교육사  
(한국고령사회총연합회)  
일시: 2013년 10월 19일 오후2시  
장소: 명동입구 외환은행앞  
‘이운수 비노기와 홀’  
연락처 이보길 ☎ 010-4461-5657

##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해피로드

Light of Hope, Songs of Joy

희망의 빛 환희의 시

Road to happiness

절찬  
판매 중



행복의 정원을 가꾸는 이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축축히 스며들어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인가의 결승점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자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 ◆추천사◆

“나와 가족의 건강이야말로 행복이라는 말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진리입니다. 일상에서 놓치지 쉬운 삶의 행복을 다시금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는 책.”

- 이덕섭, 성모의원 원장

“사춘기 아이들을 가진 부모와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언제나 고민합니다. 인정하고, 지켜보고, 다가서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꼭 와닿습니다.”

- 김현지, 신민중학교 교사

이케다 다이사쿠 지음 / 값 10,000원 / 208쪽 (주)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1-29 | 전화 02-702-7963~5 | 팩스 02-702-7988 | [www.amusementkorea.co.kr](http://www.amusementkorea.co.kr)

YES24(<http://www.yes24.com>) | 인터넷 교보문고(<http://www.kyobobook.co.kr>) | 인터파크 도서(<http://book.interpark.com>) | 알라딘(<http://www.aladin.co.kr>) | 온라인 서점 및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청년봉사단 10기 조윤희  
(인도 교육봉사)

## “내 인생 가장 뜨거운 열혈이 거기 있었습니다”

전세계 18개국에서 교육, 집짓기, 의료 봉사활동을 펼쳐온  
5500명의 대한민국 젊은이들

그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클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마련한 국제 자원봉사 문화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1천명의 대한민국 대학생이 선발되며, 방학중 해외 각 국으로 파견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넓은 시야를 가진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HYUNDAI**  
MOTOR GROUP